



박노송과
함께하는 합격의 길

박노송의

神의 한 수

출제자 분석 최종적중자료

23맞항 중 17맞항 격중 신화!!!

전 영역

1. 2021학년도 기출 문항 예상 답안 및 연간 수업 과정 연계 및 적중 자료
2. 마무리 짚기 특강의 효과성 입증 자료
3. 기출문항과 모의고사의 연계 자료
4. 문항 적중 사례 비교 예시 자료



2021학년도 기출 문항 예상답안 및 적중 분석 자료

2교시	영역	예상 답안	출제 근거	수업 관련도	강사의 적중 근거	유사정도
1	독서	스키마, 추론	독서의 본질	5-6월, 7-8월	독서의 본질은 '독해', '추론', '비판'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의 일년 동안 강조해 왔으며, 특히 스키마의 개념, 기능, 유형, 전략, 평가의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강조하였음.	적중
2	음운	자음군단순화, 음운의 개수가 동일	기저형과 표면형 반모음화	9-11월	출제자의 출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문과 저서를 중심으로 실천모의고사와 마무리 적기 특강에서 매우 강조하였음.	적중
3	고전시가	육 가론 일괄, 학마 니즈시니아가	꼼꼼히 읽기	1-2월, 9-11월	'고전시가작품론'을 활용하여 비평에 맞게 문맥의 시구 찾기 연습을 실천 모의고사에서 연습하였음.	유사
4	고전시가	대립적인 정서	상호텍스트 맥락	1-2월, 7-8월, 9-11월 과정	출제자의 출제 경향에서 '정서' 찾기가 반드시 출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용용
5	화법	공감하는 비언어적 표현 공감하기보다 분석과 비판 반영하기 전략 공감적 이해 기반한 사례 허용	대화의 원리	1-2월, 7-8월, 9-11월	려중 마무리 적기 특강에서도 제 1 순위로 출제 가능성을 점쳤던 콘텐츠. 특히나 출제자 저서의 교과서를 활용하여 '반영하기'의 사례 연습도 강조해줌. 완벽한 대비 성공.	적중
6	형태	명사와 동사(사태 언급)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남 명사를 형용사로 전성	파생 형용사	9-11월	실천 모의고사와 마무리 적기 특강 때 출제자를 고려하여 집중 정리 및 강조해 줌. 유독 파생 형용사가 출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적중
7	국어사	인정과 의문사의 유무(설명, 판정 의문문)의 차이 설명 체언과 결합(의문 보조사) 체언은 (서술)적 조사와 결합하여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음.	15세기 한국어 의문문	5-6월, 7-8월, 9-11월	15세기 한국어의 의문문의 양상은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콘텐츠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현대 한국어에 비해 더 발달된 문법 구조를 보여왔음을 강조. 그만큼 상세히 설명하고 강조하였음. 서술적 조사의 기능은 출제자를 고려하여 실천 모의고사와 마무리 적기 특강 때 출제 가능성을 특히 강조하였음	적중
8	작문	지속성, 성장과 발달, 학생의 작문 과정에 대한 정보 수집 포트폴리오, 프로토크 분석 공익성, 독자 고려 건의문 장르, 독자의 설득 효과 증대	작문의 평가 건의문 장르 지식	3-4월, 7-8월, 9-11월	작문 교육과정에서 '건의문', '장르', '작문의 평가' 만큼 많이 설명하고 강조한 내용도 드물 것이라 생각함. 그만큼 엄청나게 강조하였음. 말이 필요 없음^^;;	적중
9	현대시	1연과 연계-생명, 활기찬 2연과 연계-죽음, 쓸쓸함 황홀, 매정함 깨달음, 성장 등	인식적 기능 시어의 의미관계 시상의 전개	3-4월, 7-8월, 9-11월	문학의 작품은 사례에 불과하고 사실상 시상의 전개에 따른 '깨달음(인식의 전환)'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문학의 인식적 기능과 시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문항 구조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켜주기 위해 강조 및 연습을 반복하였음.	유사 용용
10	작문	복합언어(문자 언어 외) 적합 사례 허용 대화주의(사회적 구성주의) 독자, 협조자 역할	신문식성 작문 이론 작문의 인지 모형	3-4월 7-8월, 9-11월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조했던 내용. 다만 독서에서 강조하던 '복합양식성'을 작문 영역에 출제한 것은 신선함. 대화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독자 역할과 협조자의 역할이라는 개념을 강조한 것은 '헤이즈(1996) 모형'을 근거로 출제 가능성을 계속 강조하였음.	적중
11	고전산문	도술 능력을 평가(요사스런, 신선) 도술의 가치(목적)를 평가(올바름, 사악함) 요사스런(사악한) 도술을 더 이상 쓰지 않음 학문 수양과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잡된 술법으로 현혹하는 행위를 비판	전(傳)의 양식과 성격 꼼꼼히 읽기	1-2월, 7-8월, 9-11월	전우치전은 마지막에 고민한 작품이라 좀 아쉬움. 평결부의 의미를 파악하고 지문을 읽고 대립적인 관점을 파악하는 문항이어서 적중 여부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 신장이 되었을 때 확실히 효과적임. 이런 류의 유사 문항 개발을 통해 연습 기회를 많이 가졌음.	유사 용용
12	현대시	면 한국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쉽게 찍어진 편지', '참회록' - 성찰 '십자가', '간' - 예수 그리스도, 프로테우스 모티프를 활용한 회생과 의지	시문학사 한국 문학의 흐름 저항시	3-4월, 9-11월	윤동주와 이육사의 작품은 출제 가능성이 올해 매우 높으니 시험 보기 전 개인적으로라도 꼭 찾아서 읽어보라고 마지막까지 강조하였음. 더불어 교과서에 인용된 작품은 교과서 분석반에 세부적으로 분석해줌. 이육사의 시 해석은 논문과 사례 분석 과정을 통해서 시인의 작품 세계관을 강조하였음.	적중 용용

* 수업 관련도의 과정이 많을수록 강사가 강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한 출제 근거
* (논문기반)이라 명시된 부분은 출제자 분석 후 적어드린 출제 요소임(일반 서적이거나 수능 교재로는 접근 불가능) - 강사의 역량



3교시	영역	예상 답안	출제 근거	수업 관련도	강사의 적중 근거	유사정도
1	통사 (국어사)	수식 관계 설명 (관형어 '도흔' 수식받음, 부사어 '깃비' 수식받음)	수식언	3-4월, 5-6월	올해 수식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였음. 하지만 정작 현대 국어가 아닌 15세기 한국어의 통사구조로 물어봄. 형태는 국어사처럼 보이나 그냥 수식 관계를 묻는 문항임.	적중
2	작문	독자, 상위인지	백락	3-4월, 7-8월, 9-11월	이 문항은 할 말이 없음. 수업 들은 분이라면 부정하실 수 없을 것임. 그만큼 강조하고 주입시켜 왔음. 심지어 마무리 단계에서는 기입형 답안으로 중요하다고 손을 꼽아서 정해줌.	적중
3	독서	읽기 전, 중, 후에 대한 공통점 읽기 전 - 배경지식 활성화 전략 읽은 후 - 읽기 과정에 대한 점검과 조정 전략 새로운 질문으로 바꾸면 안 되고, 예측했던 질문을 비교, 확인해야함 다시보기(review)-읽기 과정에 대한 조정	학습 전략	5-6월, 7-8월, 9-11월	이 문항은 변별이 있을 것으로 보임. 상투적인 문제가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문항임. 출제자는 두 전략 모두 학습 전략으로써 가치가 높다고 논의한 바가 있음. 이를 엄청나게 강조하였음. 우리 수강생분들이 이 문항으로 대박났으면 좋겠음^^	적중
4	문학의 태도	자연과의 조화 - 공동체 피서지와 철도가에 고사한 왕소나무의 죽음 - 공동체 파괴 산과 거리 아름, 의로움	공동체 의식	5-6월, 7-8월, 9-11월	문학의 공동체 의식과 상호텍스트 맥락은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수업이 강조함. 이런 것을 보면 시험이 정말 출제자의 호불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입증됨. 말이 필요없는 문제임. 다만 구상 단계에서 시간 관리를 잘했어야 할 것으로 추측됨.	적중 응용
5		끝없는 난봉난 집들 그리운 고향을 잃어버림 철마(철로가), 피서지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				
6	통사	㉠ 부격격 ㉡ 적격 주어의 일치 여부 ㉢ 적격 ㉣ 부격격 시제 표현의 제약	이어점의 제약	5-6월, 7-8월, 9-11월	이어점의 제약은 3가지로 압축하여 정리하여 주입시켰음. 그 중에 반드시 나오는데 2019학년도에는 의미 관계를 물었으니, 주어의 일치 여부와 시제, 문장 표현 등을 위주로만 파악하고 비문 표시만 확인하면 된다고 방법적으로도 주입하였음. 올해의 문법 문항은 정말 기본에 충실하게 출제된 것이 특징임. 차년도에는 안 그럴 것 같음^^;;	적중
7	통사	선생님 -- 습니다 그분 - 모시다 '선생님' 직접 높임 '자동차' 직접 높이지 못함 '선생님-자동차' 간의 의미 관계(소유)를 고려하여 간접 높임	높임법	5-6월, 7-8월, 9-11월	6번과 마찬가지로 적중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정도. 하지만 적중은 적중!!^^;;	적중
8	고전산문	서술자의 개입(설명)-소설이니까 인물 간의 대화 조력자 효(孝) 강조	판소리 문체의 특징 서술방식의 종류(문체)	1-2월, 7-8월, 9-11월	문제가 나왔다(소름). 설명, 대화, 묘사로 설명되는 문체의 방법. 게다가 판소리의 서술자의 개입의 특징을 출제되었다. 출제자는 정말 정직함^^;; 마무리 적기 특장 때나 실전 모의고사반에 유독 강조한 보람이 있음. 다만 '장 승상 부인'은 박사 논문에서 참고하여 출제된 것으로 보임. 물론 몰라도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음.^^;;	적중
9	화법	'전체 주민'과 '부지 주민'의 근원적 이해를 고려하지 못함 상대방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 복수(다수) 의제 제시 파이(이익) 부풀리기	협상 전략	1-2월, 7-8월	협상은 전국 회소 모의고사에서 이미 강조하였음. 히든 카드로 숨겨놓았던 컨텐츠. 과거 양보와 불이익 등의 협상 전략을 풀은 적이 있어서(2017학년도) '화법 교육론'을 활용하여 꼼꼼히 정리해 둘 것을 강조함. 다만 <보기>가 주어져 이를 심분 활용했으면 좀 더 잘 풀었을 것으로 보임.	적중 응용
10	음운	조음 방법은 그대로고 조음 위치만 달라감 조음 위치는 동일하고 조음 방법만 달라감	음소 체계 음운의 변동	1-2월, 9-11월	조음위치 동화는 수의적인 현상임에도 출제자가 왜 강조하는 지를 마무리 단계에서 특히나 강조하였음. 물론 구개음화가 조음 위치 동화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더불어 비음화나 유음화를 설명하는 방식을 음소 관계에 따라 설명하도록 강조하고 주입시켰는데... 보람이 있음.ㅠㅠ	적중
11	고전시가	'청산'과 '유수'의 불변성을 본받아 우리도 확문에 정진하여 '만고상정'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④ '언지'가 아니라 '언락'임 '원락제', '소쇄', '만권' 등은 학문 수양을 강조함	시공간성 전유	9-11월	진짜 다행히 '도산십이곡'을 꼭 짚어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다뤄 드렸음. 물론 출제자와 동문인 교수님의 논문을 바탕으로 다른 문제여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음. 다만 출제자의 저서에서 다른 '도산십이곡'과 해법 문학에 제시된 내용을 해설 자료에 함께 수록해 드렸음. 다시 생각해도 정말 신의 한 수 있었음^^	유사 응용

* 수업 관련도에서 유사성 외에 거의 짚어서 강조한 부분은 '적중' 강조 표시 (유사 정도 '적중' > 유사 > 응용) - 관련 입증 자료는 추후 공개 예정

적중	-작성방법, 예시문까지 일치 -답안 작성 키워드(작성할 내용) 사전 확정
유사	-출제 근거 및 작성 방법 중 과반수 일치(연사기, 문법). -출제 예측 일치하나 작품만 달라짐(문학) -작품도 동일하나, 작성 방법의 요구가 종합적임(여러 강좌에서 강조한 내용을 종합해서 해결)
응용	-출제 근거를 수험생이 응용(자동성 처리)해야 처리됨



※ 시험 직전 찍기 특강 적중도(3일전 게릴라 특강 자료 원본 일부)

<p>화법편</p> <p>1. 공감-공감적 듣기(배려하며 듣기)-소극적 들어주기(주의집중, 격려하기/적극적 들어주기(요약하기(재진술), 반영하기(공감적 이해) / 자아노출과의 관련성) 적중 상담 요법(래포형성=공감적 듣기) - 관계 회복의 효과</p> <p>2. 거절-불손-체면위협행위-공손-사과/거절 이유 제시(논문 참고) 상황에 맞게 말하기</p> <p>3. 자아개념 - 긍정적 자아개념 - 자기실현적 예언 - 순환과 고착-말하기 불안과 연계</p> <p>4. 말하기 불안 - 상황/성향, 인식의 전환, 긍정적 자아개념 발표 상황 - 간투사의 잦은 사용, 비언어적 메시지, 청중의 반응 등</p> <p>5. 청중분석 - 요구, 개인적 관련성, 기존입장 / 사전지식, 지적수준, 관심사 청중을 고려한 발표, 연설 도입 전략 확인 (질의-응답, 질문, 공감대형성(일화, 동영상) 등)</p> <p>2. 나-전달법 / 사건-감정-기대</p> <p>3. 설득전략 - 이성적, 감성적, 이성적(화자의 공신력) 인성=화자의 공신력, 감성=청중(감정)에 호소(요구), 이성=논증(신, 타, 공)</p> <p>4. 화자의 공신력 - 전문성(타인의 소개, 전문적 인용(자료)/신뢰성(공감대 형성, 유머, 일화)</p> <p>5. 메시지 조직 전략 - 문제해결조직-동기화단계(주의집중-요구-만족-시각화-행동) / 일면적 메시지, 양면적 메시지(개인적 관련성, 지적수준, 사전지식, 요구, 기존입장(반대))</p> <p>6. 반대 신문식 토론 - 반대 신문(반박)-입증 책임-논제(정책)와 쟁점(개념, 문제심각성, 실현 가능성, 이익/부작용)-논증(주장과 근거자료, 이유)-질문전략(논문 참고) 정책논제-필수쟁점-찬성측과 반대측 전략 (예 이익과 비용 VS 부작용) 논증=입증-입증 근거 제시 확인, 근거의 신, 타, 공 판단 틀린 논증=주장+근거자료+이유 논증의 오류=귀납논증, 유추논증, 인과논증 (모의고사 또는 교재, 전공 서적 참고) 반대신문전략 - 폐쇄형 질문, 확인-검증질문, 질문이 아닌 자기 주장 X, 쟁점이나 논제에서 벗어난 질문 X, 단순 확인(신, 타, 공) 질문 X</p> <p>7. 녹화 기록법, 역할극(놀이법)=모의연극활용, 동료평가 (국어교육의 이해 참고)</p> <p>8. 비언어적 의사소통 - 보완/모순//대체 - 의도적/비의도적 - 시공간 / 대화함축 - 화백조절기능 - 공감적 듣기, 공감의 격률과 연계</p> <p>9. 협상전략 - 근원적 이해 / 양보와 이익 파이나누기 / 파이 부풀리기(파이=이익) 적중</p> <p>10. 면접 - 질문자의 의도 답변전략(10회차 모의고사)</p> <p>11. 메시지 - 메타적 메시지 -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관계적 메시지 언어적 - 분석적, 추론적, 비판적 듣기</p> <p>12. 토의의 주제 = 공식성, 서의성 / 토의의 유형 - 심포지엄, 패널(발표자, 질의-응답=사회자 역할 강조/협동적 의사거래=반박X) 포럼(참여자, 사회자 역할 강조), 원탁(최선의 해결안 모색 / 종합적 듣기)</p> <p>13. 발표 - 매체 활용, 화자의 공신력(전문성, 사회성 연계), 그래프의 적합성(막대, 선 그래프)</p>	<p>12. 독서 보조 전략 - 예측하기, 추론하기, 밑줄긋기, 메모하기(노트), 훑어보기, 질문하기 등 과정 중심 접근 - 읽기 전 활동(전략), 읽는 중 활동, 읽은 후 활동 - KWL전략 - 질문 생성 전략 = 날개 적중 - SQ3R / SRUN - 해석적 읽기-비판적 읽기(학습 읽기)</p> <p>13. 독서 기능 - 사실/추론/비판/창의//감상 - 정교화/상위인지</p> <p>14. 상위 구조 - 정보 텍스트 - 비교대조, 인과, 문제해결, 수집(나열) 등</p> <p>15. 사실-중심내용파악, 글구조파악 추론-답화표지어, 배경지식 활용 비판-관점, 상호텍스트, 비평문 쓰기 창의-독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해결 창의 * 이외에 참고논문 전략 참고 /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 참고 - 암기할 것</p> <p>16. 사실과 추론(텍스트와 독자)/비판과 창의(독자)</p> <p>17. 직접, 현시적, DRA, DRTA, GRP(과정중심, 전략중심) / 독서토론, 독서워크숍(사회적 의 미구성)</p> <p>18. 초인성 평가(요약, 중요도평정,프로토콜), 과정평가(빈칸메우기, 관찰법, 오독분석법)</p> <p>19. 자기선택적 독서-흥미, 동기, 읽기 목적, 글유형-독서일지-독서클럽-한학기책한권읽기</p> <p>20. 학습 독서 - SQ3R/SRUN</p> <p>21. 날개 활동 - 질문(예측하기, 관련짓기, 비판하기, 반응하기, 질문하기 등)</p> <p>22. 독해 수준 - 낮은 수준<높은 수준 (비판과 창의)/주제통합적 읽기방법 독해 기능 - 사실, 추론, 비판, 감상, 창의 독해 능력 - 정교화, 상위인지</p> <p>23. 텍스트 중심에서 독자 중심 텍스트 맥락 = 가독성, 이독성(관점 차이 있음), 글의 구조 독자 맥락 = 배경지식, 상위인지 상황 맥락 = 읽기 목적, 전략 (상황 맥락이 독자 맥락에 종속되기도 함) 상호텍스트 맥락 = 형식 스키마, 내용 스키마 사회문화적 맥락 = 가정, 직업, 지역, 성별, 연령 등 (+문식성이라 붙여 말함)</p> <p>24. 문식성=의사소통 / 재문식성(매체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p>
<p>독서편</p> <p>1. 주제통합적 읽기 - 상호텍스트, 비판적/통합적/재구성(창의적 독해)</p> <p>2. 읽기 목적/배경지식/전략/상위인지(점검과 조정)=능숙한 독자 적중 상위인지 = 맥락을 고려하여 전략 선택 및 조정 자기 주도적 활동</p> <p>3. 독서의 인지주의 모형 하향식, 상호작용적 모형, 의미구성(개인, 사회), 스키마의 기능, 유형, 전략, 평가 의미의 재구성, 초인지, 추론과 이해(스키마), 전략과 점검/조정 해석,해독 < 독해</p> <p>4. 복합 양식 텍스트(복합 양식성) - 문식성의 재개념화 - 기능적/비판적/매체 적중</p> <p>5. 글의 구조 파악-상위인지, 답화표지어, 도해조직자 전략</p> <p>6. 요약하기 - 텍스트 중심에서 독자 중심으로 (7월 모의고사 참고)</p> <p>7. 정교화(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과 연관)과 내면화(독자의 감정에 동화)</p> <p>8. 추론 전략 (모의고사 참고)</p> <p>9. 비판과 창의=고등사고기능=교육과정 정리 및 모의고사 참고</p> <p>10. 독서 토론 = 사회적 의미구성 - 반응 정교화, 6, 8번 연계</p> <p>11. 독서워크숍, 지속적 목록, 자기 선택적 독서 - 동기 신장 독서 동기, 독서 효능감</p>	<p>작문편</p> <p>1. 대화하기전략 / 협조자 / 담화 공동체 적중</p> <p>2. 헤이즈 1996모형 - 사회적 환경(독자, 협조자)과 문단(문형/매체)/장기기의 유형(장르지식, 독자지식 등)/동기와 태도/반성</p> <p>3. 반응 중심 평가 / 동료 평가 / 동료반응 피드백</p> <p>4. 평가의 주제 = 자기평가/동료평가/교수자 평가</p> <p>5.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의 가치(논문 참고) 평가항목 추가 및 보완 = 장르, 맥락, 상위인지 등 평가 적합성 - 학생의 글이 나왔을 경우는 대개 평가 오류 수정 문항 평가의 유형 - 프로토콜 분석(사고 구술법), 직접 평가, 결과 평가(총체적, 분석적), 과정 평가(포트폴리오) (작문 교육론 사회평론 참고)</p> <p>7. 쓰기 윤리 -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p> <p>11. 작문 전략 ① 계획하기(맥락고려) ② 생성하기(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생각그물망듣기), 대화전략(협조자), 다양한 관점의 자료 읽기 ③ 조직하기(개요작성, 다발짓기) ④ 표현하기(자유쓰기(열른쓰기)) ⑤ 고쳐쓰기(훑어읽기, 돌려읽기)</p> <p>12. 작문 평가 ① 분석적 평가(세부항목별 배점, 정확한 작문 과정 문제 요소 파악, 채점기준표) ② 총체적 평가(필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 가능, 상위인지, 태도 측면 평가 가능) ③ 채점기준표(분석적 평가)+총체적 평가(교사) ④ 상위인지 평가 항목(맥락 고려) ⑤ 포트폴리오(누가기록)-성장발달관찰, 지속적 평가 ⑥ 전인성, 과정중심, 실제성, 지속성, 개별화, 통합성의 평가원리</p> <p>13. 쓰기 효능감(성공경험), 쓰기 동기(내적, 외적)/효능감, 협력적 상호작용-반성적 사고(반성적 글쓰기), 자기 평가-쓰기윤리</p> <p>14. 장르 - 건의문 쓰기(7월, 실전 모의고사 확인), 보고문 쓰기(쓰기 윤리 확인) 적중</p>



<p>15. 교과서 편제 원리</p> <p>관련 서적 TOPIC 정리</p> <p>음운</p> <p>적중</p> <p>이중모음은 왜 음운이 아닌가 현대국어의 비분절음은 장단뿐인가 '을다'에 어떤 음운 변동이 적용되는가 예삿일[예산닐]은 사잇소리 현상인가, ㄴ 첨가인가 갈등[갈동]과 갈대[갈대]의 경음화는 같은가 꽃잎이[꽃니피]에서 음운변동 적용 순서는 담력[담력]은 왜 비음동화가 아닌가 문혀[무쳐]는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가 개어→개는 어미 '-어'가 탈락한 것인가 보아→봐는 음운의 개수가 그대로인데 왜 모음 주미인가 적중 농다의 활용형 나라[나라]는 왜 왜 규칙 활용인가 농는다[농는다]에서는 /ㅎ/이 바로 /ㄴ/으로 바뀐 건가 만소[만소]는 /ㅎ/탈락 후 경음화가 일어난 것인가 독도[독도]는 왜 동화가 아닌가 구개음화는 왜 조음방법 동화가 아닌가 왜 같은 '-음'이 결합했는데 명사형은 '을'이고 명사는 '음음'인가</p> <p>형태</p> <p>개살구의 '개'가 형식 형태소인가 '웃음'의 '-음'과 '더하기'의 '-기'는 이형태인가 '무덤'은 몇 개의 형태소인가 '달밭'은 왜 비통사적 합성어인가 '새신랑'은 파생어인가 합성어인가 '새파랑계'에서 어간과 어근은 같은가 맛있다가 유행 합성어인가 '가늘어지다'는 단어인가 구인가 조사 '로'와 '부터'가 결합하여 형성된 '로부터'는 왜 합성어가 아닌가 왜 '소고기'를 '쇠고기'라고도 하는가 '집에 갔다'에서 동사는 '갔다'인가 '가-'인가 '만큼'은 왜 보조사가 아니라 격 조사인가 '은'은 왜 주격 조사인가 아닌가 서술격 조사는 조사 맞나 조사가 단어인데 왜 조사가 결합한 단어는 없나 '잠을 잠이 좋겠다'에서 명사는 몇 개인가 관형사는 혼자 쓰이지 못하는데도 왜 단어인가 동음의어와 다의어, 품사 통용은 어떻게 다른가 불규칙은 왜 불규칙이고 불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p> <p>활용과 곡용</p> <p>'제가 경술했습니다.'는 두 번 높인 것인가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시구나!는 직접 높임인가 좋은 추억을 품고 산다에서 어말어미는 몇 개인가 그는 밥을 먹지를 않는다에서 '먹지'의 '를'은 목적격 조사인가 전기가 끊어지게 되다는 왜 적절하지 않는가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할 때 '한 문장'의 정의는 너 두고 보자에서 '보자'는 본용언인가 보조용언인가 코끼리가 코가 길다는 왜 겹문장인가 나는 영화가 슬퍼서 울었다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인가 행복하세요가 맞는 표현인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는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인가 별이 내가 다니던 학교에 다니다에서 내가 다니던은 학교예를 수식하는가 너와 나는 학생이라는 홀문장이냐 겹문장인가 엄마가 살을 빼기는 쉽지 않다는 어떻게 분석되는가 나는 나이지 내가 아니다는 대동하게 이어진 문장인가</p> <p>반의어와 중의성</p> <p>1. 위:아래는 상보 반의어인가, 정도 반의어인가</p>	<p>2. 문제집을 풀고 있다는 왜 중의적인가</p> <p>훈민정음과 국어사</p> <p>훈민정음 제자 원리 중에서 '합성'과 '합용'은 어떻게 다른가 훈민정음 이체자 'ㅇ, ㅅ, ㄹ'가 가획의 원리를 따른 자인가 훈민정음에서 'ㅇ(엠티음)'과 'ㅇ'은 어떻게 다른가 중세국어의 초성 '시'는 자음군인가 향찰, 구결, 이두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제 쓰들 시러 퍼디에서 '제'는 대명사인가 [냠까]의 표기가 왜 '냠가'가 아니고 '냠가'인가 음라우트와 전설모음화는 같은 것인가</p> <p>출처 「문법하고 싶은 문법」 역락 출판사 신승용, 안윤주 공저</p> <p>음운론</p> <p>중화(음절의 끝소리=평파열음화와 그 외 대포음)</p> <p>적중 달락 - 자음군단순화 외 달락(ㅎ, ㄹ, 동음-어간과 어미의 동음(형태보조사)은 관점))</p> <p>경음화 - 불파음 뒤 경음화 / 비유관사 - 어간말 비음 현상(규칙, 앓다=안다) ㄴ첨가 - 사잇소리, ㄴ첨가 처리 문제 스게 병서, 비계 병서(된소리 표기 및 어두 자음군) ㅇ, ㅎ, ㅇ, ㅅ, ㄹ의 성격 ㄹ/르, ㅅ/스 체언과 용언의 활용(규칙)>'르'불규칙, '스'불규칙(△소실) 시므-심, 이시-잇 - 용언의 불규칙 / 나모-남, 구무-균 - 체언의 곡용 합용병서 - ㅅ된소리 표기, 비복합자음 연철표기, 표음적 표기 ㄹㅎ+평음, ㄹ+각자병서 (된소리 표기) ㅇ-초성에서도 자리 / 어두자음군, 어말자음군 - 표음적 표기 스과 ㄷ의 대립 - 8중성 - 7중성(표기) - 표기 스 발음 ㄷ</p> <p>10. 하향식 이중모음 - 단모음화 - 전설모음 체계확립 - 15세기 'ㅣ'음운론적 교체 환경 ㅣ모음 역행동화(전설모음화)</p> <p>11. 성조 유무 (내, 내(주격-○/관형격-x), 누(거성-주격, 상성-관형격) 전설모음 체계 확립 - ㅣ모음 역행동화 / 구개자음의 확립-ㅣ모음에 의한 음소적 구개음화</p> <p>13. ㅅ소실 - 모음조화 파괴 / ㅅ : ㅅ - 모음체계 대립</p> <p>14. ㄴ첨가=유음화, 평파열음화=경음화, 비음동화</p> <p>15. ㄹ의 비음화=동화× / 음절말 자음(ㄴ은 제외) 두음법칙의 영향</p> <p>16. 15세기 이형태 음운론적 환경= ㅣ모음과 모음조화(단모음체계)</p> <p>적중 17. 조음위치 동화 - 양순음화, 연구개음화, 구개음화 18. 축약 - 음절 수의 감소 / 음소 수는 그대로 (반모음화, 교체) 19. 이형태 = 의미가 동일하고 상보적 분포를 이룰까만 함</p> <p>형태론</p> <p>'잡다', '맞다'+ 부사파생접미사 '-오/우-(생산성 없음) - 자주, 마주 (단일어화) '무덤', '주검', '기둥' 명사파생접미사 생산성 없음 - 단일어화 '옛보다', '옛듣다' '옛-' - 15세기 동사</p> <p>2. 체언 형태 변화 - ㅎ중성체언, 모음 탈락, 모음탈락 후 ㄱ뎡생김, ㄹ/르, ㅅ/스</p> <p>3. 이/의(모음조화) - 관형격 조사 / ㅅ-높임유정체언, 무정물 이/의/에/애/에 - 부사격 조사</p> <p>4. 조사, 부터, 로써, 까지, 께, 께서, 에게,에서 등 문법화 사례</p> <p>5. 15세기 불규칙 - ㄷ-ㄹ교체, ㄱ탈락, 오-로 교체, 거/어-나 교체</p> <p>6. 조사와 어미 체계 / 15세기 한국어 비교(비교 부사격 조사/ 이,에>와/과)</p> <p>7. 비교, 공동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 구분</p> <p>8. 의존명사의 문법화, 통사적 제약</p> <p>9. 보조사적 용법과 격 조사와 보조사의 구분법 (이, 을/를, 은/는)</p> <p>10. 내/네/제 구분 -15세기와 현대 한국어</p> <p>11. 관형격 조사, 관형사형 어미의 광범위 쓰임</p> <p>12. 관형절 (-오-)의 실현</p> <p>13. 15세기 관형격과 부사격 조사 구분, 관형절과 명사절 구분, 의미상 주어, 목적어 구분</p> <p>적중 14. 파생접미사의 생산성 15. 파생동사와 형용사</p> <p>16.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 15세기 비통사적 합성어의 변천 양상</p> <p>17.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분 / 진행상, 완료상, 상태(결과)지속상 / 사동, 피동, 부정, 양태</p>
---	---

2021학년도 전공국어 출제 적중 분석 자료



<p>와 상 / '-어 있다'의 동사와 형용사 구분 18. 15세기 조사와 어미 총정리(부록 참고) / 현대 한국어와 형태 변화 반드시 비교 정리 19. 이/의 vs 이 (명사화/부사화 접사) 20. '-어지다'형태의 특징 - 피동 vs 접사의 기능(자동사화)</p>	<p>2. 미학적 방법 - 풍자 - 아이러니 (논문 참고) - 환상(모의고사 참고) - 모더니즘 소설(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소설 기법, 모의고사 참고)</p>
<p>통사론</p> <p>1. 의문보조사 / 오 계열 (의문사, 설명의문문) / 아 계열 (판정의 적중) -르다, -는다, -르하다 (2인칭)</p> <p>2. 내포문의 주어에 주격 조사 대신 관형격 조사의 결합 예) 제자(諸子) 아버의 편안히 안곤 돌 알오 내포문의 주어가 주격 조사 대신 목적격 조사와 결합 예) 오직 풍을(풍이) 돌며 뿌물 맛볼 거시라 사르미 이룰(일이) 다투 올듯 호물 슬노니 하늘이는 지민이(가) 예쁘다 생각한다. (현대 국어 특수) 여기다, 느끼다 제약</p> <p>3. 현재형 어미 '-느-'가 근대기에 '-ㄴ/는-'으로 분화 4. 주제 높임 '-시-', 객체 높임 '-습/줍/습/줍/줍/줍-', 평서문 '-ㄱ/-이-' 5. 사르다/살이다 - 의미 차이 6. -이/히/기- 외 '-리-'피동 접사 / -이-(연철, 분철 이형태) / 접사의 형태 변화, 파생적 피동문에서 통사적 피동문으로 변화 (사동문 동일) 7. 피동문-능동문=유의관계 / 능동문과 피동문 의미가 달라짐 / 피동문과 능동문이 늘 1:1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님 / -어지다 ① 통사적 피동 ② 상태변화(형용사) ③ 동사화(자동사) / '-게 되다'와의 차이점(7월 전국 모의고사 참고) 8. 감탄문, 약속문, 허용문 = 평서문 중화(간접 인용절) 9. '-어라'- ① 명령문 ② 감탄문 / 15세기 하야체 명령문 = 하라체 감탄문 형태 유사 10. 종결어미의 기능 - ① 문장종결(문체) ② 상대높임등급 ③ 의향(양태) 11. 상 - -어 잇-(완료, 진행 모두 나타남)>과거시제 / -고 잇- / -게 하얏(-했-) 12. -더-와 -다-의 대립 / -더-와 -던의 차이 / -(으)리-와 -더-의 시제표지 13. 문장 종결, 시제 표현, 피동, 사동 표현 - 15세기 한국어 형태와 꼭 비교 정리</p>	<p>3.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탐색 - 해석 : 독자 중심, 효용론적 관점, 과학적 근거를 기반한 다양한 해석 - 상호텍스트성 : 기성 해석에서 이탈, 새로운 해석 지향, 텍스트 간 공통점과 차이점 해석 - 맥락 : 문학사적 맥락, 작가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 내재 응용 - 공감(공체협) : 정서 찾기와 그 이유 찾기 / 독자 반응-중심 / 윤리적, 인식적 기능 / 동일시(감정이입) - 논문참고</p>
<p>의미론</p> <p>1. 유의관계 검증 방법 2. 다의 관계와 반의 관계 3. 동음이의어 4. 상하 관계와 함의 5. 전제와 함의</p> <p>현대문학</p> <p>시어의 의미 관계, 문맥적 의미, 시어의 상징(상징의 이미지) 응용 방이(기제)(승화, 합리화, 투사, 동화(동일시)) 환유, 알레고리, 사회문화적 맥락 공체협(독자 중심, 동일시, 감정이입, 공감) 적중 독자 중심 반응 및 비판적 해석 질문 상호텍스트 비평문을 활용한 문학 교육 (경험 중심) 내면화 구성(plot)- 깨달음과 그릴듯함, 시점과 초점화 인물의 성격(소)-대화, 소재, 갈등, 직접제시, 묘사, 반복사건 배경의 역할 - 시간성, 공간성 - 모더니즘(타인의 방) 소설 (모의고사 참고) 문체 (설명, 묘사, 대화) - 자유간접문체 (태평천하 논문참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몽타주 기법, 의식의 흐름, 만연체 (모의고사 참고) 매체 (시나리오) - 몽타주, 장면서술, 교차기법, 효과음 및 시나리오 기법(용어) 극-대사 / 서사극 수용과 생산 - 개작, 창작, 패러디 맥락-작가, 사회문화적, 상호텍스트 주체적 수용 20. 시어의 의미, 어조와 태도, 시상의 전개방식 관련 키워드 암기</p>	<p>고대가요 탄생에서 죽음까지 공무도하가/황조가/구지가</p> <p>향가와 속요 신라인의 애환 서동요/현화가/제매가가</p> <p>2. 고려인의 삶과 꿈 사모곡/상처가/가시리</p> <p>시조 노래로 대결하기 하여가/단심가/까마귀 싸우는 골에/까마귀 겹다하고</p> <p>2. 노래로 시를 풀기 노래 삼긴 사람 / 매아미 맏다 울고</p> <p>3. 자연과 전원, 그리고 인간 청산도 절로절로 / 십년을 경영하야 / 비 오는데 들에 가라 / 동창이 밝았느냐</p> <p>4. 무인의 기개 삭풍은 나무 끝에 / 한산섬 달 밝은 밤에</p> <p>5. 노래가 품은 역사 천만 리 마나면 길에 / 방 안에 켜 촛불 / 가노라 삼각산아 / 청석령 지나거나</p> <p>6. 고행에서 성숙으로 견회요 / 오우가</p> <p>7. 비웃기 혹은 비꼬기 태산이 높다 하되 / 두꺼비 파리를 물고</p> <p>8. 새 울고 귀뚜라미 울고 임 그런 상사몽이 / 공산에 우는 접동</p> <p>9. 사랑과 이별과 눈물 어저 내 일이야 / 청산리 벽계수야 / 뒤편들 가려 꺾어 / 이화우 흙뿌릴 제</p> <p>10. 상상으로 시를 달래기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 한숨아 세한숨아 / 어이 못 오던가</p> <p>민요 말의 재미와 말의 힘 나무 노래 / 새야 새야</p>
<p>현대소설 교육론 주요 콘텐츠 정리</p> <p>1. 텍스트 중심 해석 - 인물(2020), 플롯과 사건(2017), 배경과 시공간, 서술담론과 시점, 초점화와 서술(2020), 문체, 주제</p>	<p>2. 서러워라, 시집살이 시집살이 노래 / 잠 노래</p>

2021학년도 전공국어 출제 적중 분석 자료



<p>3. 아리랑에 담긴 애환 진도 아리랑 / 밀양 아리랑</p> <p>4. 일으켜 세우기와 가라앉히기 강강술래 / 꿩지나 칭칭나네 / 자장노래</p> <p>출처 : 「시를 품고 옛 노래를 부르다」 글누리 출판 류수열 저</p> <p>주요 컨텐츠</p> <p>미적 범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고미 - 현실과 이상의 추구 - 해학미 - 웃음 - 웃음 유발 근거 (웃음으로 눈물담기) - 비장미 - 결말구조의 비극 - 독자에 따라 다르게 반응(이생규장전, 윤영전) : 죽음이 또 다른 이상 실현(=송고) <p>2. 돌려세우기 어법 / 끌어들이기 어법 (모의고사 및 간접화 어법 논문 참고)</p> <p>3. 빛대어 말하기와 여성 화자의 어조 - 공감</p> <p>4. 반성과 성장 (견희요 -> 오우가)</p> <p>5. 지조(절개) 오우가의 사물의 특성</p> <p>6. 교육과정 성취기준별 활동 위계와 의의</p> <p>7. 분석-해석-상호소통(내면화)</p> <p>8. 시공간과 공감, 전유, 경험</p> <p>9. 꼼꼼히 읽기-맥락을 고려하며 읽기-거리두며 읽기-작가되어보기</p> <p>10. 문학사, 정서, 미의식, 주제</p> <p>11. 혜성가, 청산별곡, 가시리, 동동, 만전춘별사, 사설시조,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상호텍스트), 탄궁가, 우부가와 용부가(상호텍스트)</p> <p>12. 방어기제</p> <p>13. 판소리와 판소리체 소설 (흥부가와 흥부전 조심, 꼭 사전 읽어보기) 인터넷 검색</p>	<p>색이나 해법문학, 모의고사</p> <p>14. 언어유희와 미의식(웃음)</p> <p>15. 장단의 서사기능, 장면의 극대화, 서술방식의 특징(태평천하 비교), 서술자의 개입</p> <p>경험 교육</p> <p>청산별곡의 보편적 정서, 공감 - 현실 도피, 이상 추구</p> <p>도산십이곡 경험(모의고사 참고)</p> <p>‘엇디후리’ 표현의 편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 대책의 부재에 따른 체념과 비애의 표현 - 차별화에 따른 자부심과 우월감의 표현 (경기체가, 사대부 가사) - 행위 합리화를 위한 설의적 표현 (만언사) <p>4. 안빈낙도와 탈속적 세계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항사, 탄궁가 : 현실 극복 - 비판의 대상, 자기 과시 (조선후기) <p>5. 관념적 인식 = 역군은</p> <p>6. 문학의 시공간성</p> <p>7. 수작시(의사소통의 기능) 예) 단심가와 하여가, 임제와 한우의 시조</p> <p>8. 공간이동에 따른 경험(유배가사, 복찬가)</p> <p>9. 세대와 개인의 성장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부가, 우부가 - 고궁가 (빛대어 말하기) - 덴동어미 화전가 : 여성의 기구한 운명에 따른 성장 과정 <p>10. 늠름의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늠름을 거부 예) 탄로가 - 늠름을 수용 예) 낙치설
---	--



9-11월 최종 모의고사 문제 中 적중 경향

박노승 선생님 9-11월 총 10회분 모의고사 속 완전 적중 문제들	2021년도 기출문제
1회 모의고사 A형 6번 읽기 목적 고려하기 KWL 모형에 대한 활동 의의	A형 1번 읽기 목적에 따라 학생 반응 차이 인식 (읽기 목적에 대해 항상 강조했었고, 독서 영역 기입형의 예상 답안으로 보유했 것을 항상 강조 하였음.) B형 3번 KWL, SQ3R 독서 모형 기반 수업 분석 (KWL, SQ3R을 학습 독서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5월부터 강조하였고, 전략 외에 교 수학습 모형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해설지와 신의 한수 교재에 자세히 실음)
1회 모의고사 A형 4번 정과정 시구 문맥적 의미와 작가 맥락 연결	A형 3번 정과정 작가 맥락과 시구의 정서, 의미 (정과정, 유배가사, 속미인곡, 사미인곡, 만분가를 유배가사의 흐름으로 1-2월 고전문학 수업에 서 자세히 연계되었고, 모의고사 문제에서 정과정 시구에 내재된 화자 정서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물어봄.)
1회 B형 8번 생태학적 공동체 의식 문학 태도 적	B형 4-5번 문학의 태도, 생태학적 공동체 (문학 작품을 토대로 하여, 생태학적 공동체 의식을 문학의 본질과 태도로 함께 연계하여 물어 봄)
중2회 모의고사 A형 2번 작문 고려하여 글쓰기와 반성적 사고의 상위인지 기능 신장 적중	B형 2번 독자 요인과 상위인지 (독자 요인을 고려한 글쓰기와 베레이터 모형에서 반성적 사고를 신장시키는 것을 한꺼번에 물어봄, 해설에서 베레이터의 반성 적 사고와 인지모형의 상위인지 연결하여 해설, 설명)
3회 A형 6번 복합 양식성 특성 이해와 읽기 목적 독서 맥락	A형 1번 읽기 목적 A형 10번 복합 양식적 특성 (중간고사, 전국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에서 복합 양식성을 반복해서 문제로 출제)
3회 B형 6번 중세국어 의문문 특성 비교 적중	B형 7번 중세국어 의문법 변화 (중세국어 의문법의 특징들을 해설지에 자세히 실고, 7-8월 문제들과 연계함)
4회 B형 4번 건의문 장르 관련 특성과 구성요소의 효과	A형 8번 건의문 장르 고려 B형 2번 독자 고려하여 고쳐쓰기
5회 A형 5번 공감적 듣기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적 들어주기 분석	A형 5번 공감적 듣기 (=A형과 5번 문제라는 것까지 적중..... 공감적 듣기에서 적극적 들어주기를 교과서 지문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비교하기)
5회 A형 10번 연결 어미 결합 제약 동일 주어 제약 (해설지 참고 내용)	B형 6번 연결어미 제약 동일주어 제약과 '-어서' 물어봄
6회 A형 5번 SQ3R모형 기반 수업과 활동 훑어보기를 통한 배경지식 활성화 질문생성하기	B형 3번 SQ3R 읽기 전 전략 2가지 (SQ3R 모형으로 계획된 학습과 활동에서 읽기 전 전략 물어봄)
6회 B형 7번 접미사 결합 시 어근의 제약 분류 지배적 접사 가능 적중	A형 6번 어근과 접사 (접사에 결합할 수 있는 어근과, 결합할 수 없는 어근 등등 음운론적 조건과 형태론적 조건을 같이 물어보고, 지배적 접미사로서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같이 물어봄)
7회 A형 7번 도산십이곡 맥락 파악	B형 11번 도산십이곡 언지와 언학 구분 문제



해설지 자세한 참고 내용	해설지에 언저 부분만을 강조시기를 보는 이유와 설명이 구절, 풀이를 기반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음.
7회 B형 4번 독자 고려 담화공동체 공유하기 활동 상위인지 기능	A형 10번 모듬과의 협의 활동의 의의 (공유하기 활동으로, 협조자와의 활동이 주는 효과와 의의를 물어봄) B형 2번 독자 고려하여 표현하기
8회 A형 7번 배경지식 활성화 전략으로서의 KWL 읽기 목적 고려한 상위인지 기능	B형 3번 SQ3R, KWL (읽기 전 활동과 특성 고려하기) A형 1번 읽기 목적 고려하는 상위인지 강조
8회 A형 9번 반모음화 교체 현상 강조 음운 축약과 음절 축약 비교 적중	A형 2번 반모음화 음운 축약과 음절 축약을 정확하게 비교하는 문제로 물어봄
9회 A형 2번 사고구술법, 프로토콜 분석 평가법 평가의 의의	A형 8번 작문 평가 B형 2번 독자 고려하여 글쓰기, 상위인지 신장
9회 B형 11번 태평천하를 기반으로 판소리문체적 특성 강조	B형 8번 심청전 고전산문의 서술 방식 (태평천하와 함께 연계하여 판소리와 같은 이야기 구연체의 특성 이해)
9회 B형 5번 건의문 장르적 특성 건의문 문제와 해결방안의 특성 강조	A형 8번 건의문의 구성 요소와 특성 (건의문의 형식과 구성, 필요성 묻고, 사회적 책임일 반영한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것을 강조)
10회 A형 9번 어근과 접미사 구분 및 품사 변화 설명 문제	A형 6번 어근과 접미사 (접미사에 결합하는 어근 특성 평가하기)
10회 B형 4번 사회적 구성주의 협조자와의 활동 의의	A형 10번 모듬과의 협의



※ 적중 사례 비교군 자료 예시 - 기타 문항별 분석은 부록을 참고

적중 사례 1

5. 다음을 읽고, 공감적 듣기의 효과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가)

김 교사는 국어 시간에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으로 '최근에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속상했던 상황과 그때 오갔던 말'을 적어 보게 한 후 이를 짝과 함께 역할극으로 재연해 보게 하였다. 다음은 그중 일부이다.

학생 A : 이번 달에 모둠 발표 과제가 3개나 있어. 나는 모둠으로 해야 하는 과제는 정말 싫어. 모둠 구성원들과 서로 시간 맞춰야 하지, 의견이 다르면 계속 토의해야 하지, 같이 모여서 발표문 써야 하지, 시간도 많이 들고...

학생 B :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렇지.

학생 A : 남의 말은 잘 듣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말만 맞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는 보기 싫을 때도 있어.

학생 B : (상대를 바라보며) 그래도 그게 혼자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

학생 A : 그렇지만 말은 부분들 잘 안 해 오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모둠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비협조적인 사람 못까지 내가 해야 할 때도 있어. 차라리 과제를 혼자 하는 게 낫다 싶을 때도 있어.

학생 B : ㉠ 불평불만 늘어놓으면 끝도 없잖아. 모둠 과제니까 좀 손해 본다 싶더라도 참고 해야지.

학생 A : 누가 모르니? 그만하자. 너랑 이야기하니까 나만 못난이 같아 더 화가 난다.

(나)

공감적 듣기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며 듣는 방법이다. 공감적 듣기는 크게 소극적 들어 주기와 적극적 들어 주기로 구분한다. 공감적 듣기는 참여자 간에 메시지가 원활하게 소통되게 할 뿐만 아니라 ㉡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작성 방법>

- 공감하며 듣고 반응하기의 맥락으로 볼 때, ㉠의 문제점을 ㉡의 관점에서 2가지 서술할 것.
- 학생 B에게 필요한 '적극적 들어 주기' 방법의 명칭을 쓰고, 이 방법을 적용하여 ㉠의 표현을 수정할 것.

5. 다음은 역할극을 활용한 수업 대화 상황을 바탕으로 교과서 활동과 수업 지도안 일부를 각각 (가)와 (나)와 같이 제시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교사의 지도 내용을 서술하십시오.[4점]

광휘 예준아! 잠시 이야기할 수 있니?
 예준 (학습 과제 작성에 열중하면서) 왜?
 광휘 1층 중앙 현관 특별 구역 청소가 이제야 끝났거든. 예준아, 나 좀 봐 줄래?
 예준 (광휘의 눈을 마주치며) 그래. 내가 과제에 열중하다 보니..... 미안해. 수업 마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지금 끝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광휘 그래서 특별 구역 청소 배정에 대해 이야기 좀 하려고. 너희 청소 구역이 1층 좌측 계단부터 3층 계단 올라가기 전까지잖아. 너희는 몇 명이서 하니?
 예준 우리는 민수, 준형이하고 나, 세 명이서 하고 있어.
 광휘 (손뼉을 치며) 그렇구나. 우리는 두 명이서 하고 있는데, 둘이서 청소를 하기에는 구역이 너무 넓은 것 같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희는 셋이서 청소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예준 보통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광휘 그러니까 너희 특별 구역은 세 명이서 10여 분 만에 끝나는구나. 우리는 20분 이상 청소해도 끝날까 말까 하거든. 미안하지만 너하고 민수, 준형이가 양해를 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청소 구역을 합쳐서 청소를 하면 시간이 더 절약될 것 같거든. 그리고 내가 반장으로서 선생님께 우리가 이야기한 청소 구역을 말씀드려서 허락받았으면 좋겠어.
 예준 그래. 우리 특별 구역 청소를 맡은 친구들도 너희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거야. 친구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선생님께 1층 중앙 현관부터 3층 계단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들이 함께 청소해 보겠다고 말씀드려 볼게.

<보 기>

(가) 교과서 활동 일부

활동 2 대화에 사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다음 표에 정리해 봅시다.

소극적 들어 주기	적극적 들어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눈을 마주친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나) 단원별 수업지도안

구분	교수.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도입	:	:
전개	선행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적 듣기의 개념 설명 • 공감적 듣기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적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집중하기 ㄴ. ㉠경려하기 - 적극적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요약하기 ㄴ. 반영하기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적 대화의 중요성 파악하기] 두 상황의 대화를 비교해 보고 보다 성공적인 대화를 찾아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한다. • 공감적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추측해 보도록 한다.

<작성 방법>

- ㉠에 해당 하는 표지를 두 학생의 대화에서 각각 찾아 쓰고, 이러한 표지가 가지는 표현 효과를 서술할 것.
- 활동 2에서 '예준'이의 적극적 들어주기가 드러나는 부분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찾아 쓰고, (나)를 고려하여 반영된 공감적 듣기 전략을 서술할 것.

[예시 답안]



'그렇구나'나 '그래'에서 상대방에게 맞장구 쳐주는 표현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공감적으로 잘 듣고 있음을 드러내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선생님께~볼게'에서 예준이는 광휘의 의도와 감정을 고려하여 반영하기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력하고 있다.

【 해점 기준 】

1	○ '그렇구나', '그래' - 1점 ○ 공감, 경청, 배려 등의 상대방의 대화를 잘 듣고 있다는 설명 - 1점
2	○ (친구들한테 허용)선생님께~볼게 - 1점 ○ 반영하기 기술 - 1점



적중 사례 2

9. (가)는 협상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이고, (나)는 협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 대한 분석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행복시 ○○구에서는 주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대규모의 공영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지역민이 주차장 건립을 찬성하고 있지만 주차장 예정 부지에 주거 중인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다. 구청 측에서는, 해당 부지 주민들이 구에서 제시한 토지 보상금을 받고 공영 주차장 건립에 동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부지 주민 측에서는 구에서 제시한 토지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현재 주거지 근처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

구청 측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공영 주차장 건립추진을 위한 협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양측의 입장을 서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 측이 강 조했던 바와 같이 이 부지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면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에게도 좋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민 측 : 이 지역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원하지 않아도 땅을 팔아야하고 수십 년 살던 정든 곳을 떠나야 합니다. 지역 주민 전체와 이곳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우리를 구분 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청 측 : 주민 여러분께서 이 지역에 얼마나 애정이 깊으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부지 주차장 건립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측 : 이 사안은 우리 측이 이 지역에 얼마나 애정이 깊은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측의 말을 오해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가 우리 구청에서 항상 강조하시는 바 맞지요?

구청 측 :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도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 측 : 살던 곳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구청 측에서 제시 한토지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안하셨던 토지 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이주·정착비를 지급해 주시고, 공영 주차장 건물에 들어설 상가의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부지 주민들에게 배분해 주신다면 우리 측에서도 공영 주차장 건립에 동의하겠습니다.

구청 측 : 이주·정착비에 대한 제안은 저희 측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건물 내 상가 운영 수익금 배분에 대한 것은 여러 기관이 함께 논의할 문제라서 현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나)

협상은 자기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보다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대개 사람들은 협상에서 단일 의제를 제시하고 상대의 답변을 기다린 후 이에 대하여 양보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나 단일 의제에 대하여 상대가 양보하게 하는 것은 교섭 영역이 좁아 파국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단일 의제 협상에서는 양측이 쉽게 타협할 경우 최선책이 되는 윈-윈 협상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작성 방법>

- [A]에서 구청 측의 협상 방법에 나타난 문제점을 쓰고, 그 문제점의 원인을 (나)를 참고하여 서술할 것.
- [B]에서 주민 측이 사용한 협상 전략을 쓰고, 이 전략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정보적 측면에서 서술할 것.

3. 다음은 학생회 측과 학교 측이 나눈 협상 내용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이 협상 상황을 두고 <보기>와 같이 교사 간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학생회 측 :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실 환경에서 학교에 와서도 친구들과는 전혀 교류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일정 시간만이라도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측 : 현재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인다 하더라도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시점에서 간신히 개학한 상황입니다. 아쉬움이 있더라도 좀 참고 인내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현재 상황에서 학교 내에 확진자라도 나온다면 학교와 지역에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생회 측 : 현재 노출된 교실 환경은 활동만 못할 뿐이지 사실상 코로나 예방에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쉬는 시간을 5분만 진행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수업시간에 선생님과의 수업 대화 역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차라리 위생 관리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단위 교실별에 따른 예방 교육과 철저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학교 측 : 교실에는 투명 차단막을 책상마다 설치하였으며, 교사와 학생 간의 접촉을 막기 위해 사전에 수업 대화를 소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요구한 상황입니다. 학생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권장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학생회 측 : 온라인 개학을 마치고 모두 기대를 가지고 학교에 등교하였지만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입니다. 선생님들과의 수업대화는 차단막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루어지면 코로나 예방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교실 밖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노출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쉬는 시간을 단위 학급별이나 학년별로 교차 진행하고, 외부 활동보다는 교실 내에서 매일 사전 위생 관리와 체온 및 증세 검진을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 : 학생회 측은 이해합니다만 저희 측은 양보할 의무도 없으며 고려할 계획도 없습니다. 의견은 수렴합니다만 학교 정책은 학교 내의 협의에 의한 결정된 바 학생 여러분들은 이를 양지하고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학생회 측 : 오히려 우리 학교에서 선구적인 학교 운영으로 대외적으로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외부 접촉을 줄이고 환경에 제약을 두고 여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행동 추구를 학생들에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A)

학교 측 : 이미 교육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할 것을 교장 선생님 이하 학교 책임자분들의 결정된 바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존대로 쉬는 시간은 5분으로 단축하며 학교를 빨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대화는 제한적으로 진행되며 교실 안과 밖의 교류활동은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

학생회 측 : 학교 측에서는 이 협상을 진행할 의욕이 진정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협상을 요구한 쪽은 학교 측이었는데 처음부터 학교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만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보기>

김 교사 :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이 코로나에 노출될 위험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개학까지 한 마당에 너무 폐쇄적인 거 같습니다.

이 교사 : 맞아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온다고 얼마나 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집에서 수업 들었던 환경보다 더 열악하고 폐쇄적이니 참 안타깝네요.

박 교사 : 하지만 학교 측의 주장도 이해가 됩니다. 교육부의 지침이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만약 잘못되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회 측의 요구를 들어주기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사 : 하지만 학생회 측은 적절한 협상 대안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시종일관 학교 측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모습이 좀 답답하네요.

김 교사 : 맞습니다. 협상을 요구한 쪽도 학교 측으로 오직 자신들의 입장을 학생회가 수용하고 그에 따른 도움만 바라고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마지막 학생회 측의 발언에서 결코 좋은 협상의 진행 과정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협상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정점이 없다는 것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작성 방법>

- ①을 고려할 때 협상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들어 바람직한 협상에 대해 서술할 것.
- (A)에서 드러나는 학생회 측의 협상 전략을 서술하고,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서술할 것.

【 예시 답안 】

협상은 근원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호 교섭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앞의 협상 과정은 이러한 사항에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A)에서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만한 제안을 여러 개 제시하여 설득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이 학생회 측과의 갈등 쟁점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 결렬이 나타났다.

【 채점 기준 】

1	○ 근원적 이해 - 1점 ○ 상호 교섭적 - 1점
2	○ 이익 - 1점 ○ 쟁점에 관심이 없고 고수(固守)했다는 점을 설명 - 1점

【 참고 내용 】

파이 나누기와 파이 부풀리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북아일랜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까지 서로가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단기간에 획기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기 어려운 국면에 봉착해 있다. 양자택일의 상황. 이혼할 경우 누가 집을 차지하느냐, 누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것인가 등 상황이 어떠한지 선택은 한정되어 보인다. 창의적인 옵션(파이 부풀리기)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대안이 된다.

	실제상으로 C	이론상으로 D
잘 못 된 것	제1단계 문제 · 무엇이 잘못됐나? · 드러난 상태는 무엇인가? · 희망하는 상황과 대조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실은 무엇인가?	제2단계 분석 · 문제를 진단한다. · 상태별로 분류한다. · 원인을 파악한다. ·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 문제 해결의 장단에 주목한다.
A	A+C	A+D
	↑	↓
해야 할 것	제4단계 행동에 관한 생각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세부적 단계를 밟아야 하는가?	제3단계 접근 · 가능한 전략 혹은 처방은 무엇인가? · 이론적 치유책은 무엇인가? · 해결책에 대한 폭넓은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B	B+C	B+D

② 파이 부풀리기 사례

북아일랜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옵션 하나는 가톨릭 구교도와 신교도 교사들이 초등학교 5-6학년용 대상으로 한, 북아일랜드 역사에 관한 교과서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아일랜드 역사를 이제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조명해 주고, 학생들에게 처지를 바꾸어 역할을 수행하게 한 뒤 생각하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때 다음과 같은 제안을 덧붙이면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제안① 두 학교 제도에 공통적인 교육 내용이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안② 양측 학교 선생님을 바꿔서 그 교과서를 가르치게 한다.
- 제안③ 양측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그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한다.

[협상의 재개념화]

협상은 당사자간의 근원적 이해(real interests)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상호교섭적(transactional)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적중 사례 3

8. 다음을 읽고, 수행 평가 계획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교사 A : 1학기 <화법과 작문> 수행 평가 계획의 초안을 준비해 보았는데, 보완할 점에 대해 협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행 평가 계획

- 쓰기 과제
현안을 분석하고 쟁점을 중심으로 한 건의문을 써 보자.
-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 분석적 평가 방법 적용
 -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평가
 - 평가 요소별 피드백 제공
- 건의문 평가 범주 및 평가 요소

평가 범주	평가 요소
내용	• 문제 상황을 제시했는가? •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가?
조직	• 건의문 구성 형식에 알맞게 글을 조직했는가? • ... (생략) ...
표현	•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표현했는가? • ... (생략) ...

교사 B : 평가 계획을 작성하느라 수고하셨네요. 근데, 수행 평가 계획에는 결과 평가만 계획 되어 있는데 ㉠과정 평가도 실시하면 어떨까요?

교사 A : 좋습니다. 저는 결과 평가만을 계획했는데, 결과 평가와 과정 평가를 균형 있게 다 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네요. 그렇다면, 학생 자신이 건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사고를 기록하도록 하는 과정 평가를 추가하기로 하지요.

교사 B : 네. 그럼 다음으로 평가 요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죠. 내용 범주에 대한 평가 요소를 조금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건의문은 현안 분석을 하여 도출된 쟁점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특징이 있지요. 내용 범주와 관련하여 문제 상황 쟁점의 경우에 독자가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 쟁점을 제시했는지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 "문제 상황을 제시했는가?"의 평가 요소도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교사 A : 그렇지요. 해결 방안 쟁점에 관련된 평가 요소도 마찬가지로요. 건의문은 공 동체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설득하는 목적으로 쓰는 글이지요. 이에 그 대상이 해결 방안을 긍정적으로 수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 방안의 요건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 쟁점의 평가 요소는 "해결 방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기대 효과를 해결 방안과 함께 제시했는가?"라고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작성 방법 >

- [A]의 맥락에서 ㉠의 교육적 의의를 서술하고, ㉠의 구체적 방법 2가지를 제시할 것.
- [B]의 맥락에서 ㉡을 수정하고, ㉢이 평가 요소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를 서술할 것.

2. (가)는 고쳐쓰기 평가 및 피드백과 관련한 단계별 모형을 제시한 것이고, (나)는 이에 대한 교사 간의 협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과 ㉤에 들어갈 평가 방안을 차례대로 쓰시오. [2점]

(가)

단계	교수학습활동			평가방안
	첨삭 피드백	주체	방법	
1	학생	공개	글 중심 고쳐쓰기	자기평가
	필자	첨삭	↓ 1차 수정본	
2	동료	협력	독자 중심 고쳐쓰기	(㉣)
	동료	첨삭	↓ 2차 수정본	
3	교수	첨삭 피드백과 평가	종합적 고쳐쓰기 ↓ 3차 수정본	교수자 평가

(나)

오 교사 : 고쳐 쓰기 평가 및 피드백 위해서 3단계 과정을 중시한 모형이 참 참신하네요. 단계별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 교사 : 물론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독자 중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을/를 활용할 분석법을 1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 교사 :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박 교사 : 자신이 글을 쓰는 동안 일어나는 사고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쓰는 실시간 자기 기록법이나 자신의 생각을 직접 구술하는 방법인 사고 구술법 등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오 교사 : 그렇군요. 다만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들은 학생들이 익숙할 때까지 별도의 훈련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교사 :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 방법에 익숙해 지면 앞으로의 글쓰기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도 신장될 뿐만 아니라 효능감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동료 평가 ㉤ 프로토콜

■ 과정 평가

(1)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평가

포트폴리오(portfolio:자료철)를 활용한 작문 평가는 일정 기간에 걸쳐 학습자가 작문에 참여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으는 것에서 출발한다. 학습 활동의 결과로 모인 자료들은 학습 과업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지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아울러, 학습자에 대한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포트폴리오 장점

① 학습자는 작문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작문 활동을 점검할 수 있고, 교사 또한 지속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포트폴리오를 활용 가능

②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등을 수시로 병행하면서 진행하거나, 복수의 평가자가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2) 프로토콜을 활용한 평가

'프로토콜(protocol)'이란 사건, 경험, 발화 등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또는 일어난 직후에 기록한, 다듬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기록(녹음 또는 전사)을 말한다. 프로토콜 분석은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학생이 글을 써 나가는 과정 중 머릿속에서 일어났던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하기 위해 시행한다.

프로토콜 유의사항

① 프로토콜은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쉬운 화제 혹은 과제를 택해 몇 차례 연습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② 학습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한다. 만약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나 생각했던 것을 고의로 조작 및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된다.

③ 학습자들이 교수자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만 한다. 특히 학습자들이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만 자신이 했던 작문 상황에 몰입하여 그 과정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④ 학습자가 어려워하면 교수자는 중간 중간에 단서를 주거나 질문을 던져서 회상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출전 : 권순희 외, 「작문 교육론」, 사회평론

4. (가)는 어느 고등학생의 초고이고 (나)는 이를 스스로 고쳐 쓸 항목을 메모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와 같은 친구들의 평가표를 받았다고 할 때, <작성 방법>에 따라 지도 내용을 서술하시오.[4점]

(가) 학생의 초고

○○ 시장님께

시장님 안녕하세요. 한가지 사함을 건의드리고자 편지를 씁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고등학교 앞에 정차하는 버스 노선이 01번 하나뿐이고, 01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이어서 학생들이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행해 주면 좋겠지만, 재정 상태가 좋지 않고 언제나 미루기만 합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시행될 것 같았는데, 역시 무산되어 버려 학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고등학교 앞에 정차하는 버스 노선이 늘어나고, 01번 버스의 배차 시간이 단축된다면, 등하교 시간의 혼란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 노선의 증가가 어렵다면, 01번 버스의 배차 간격을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21일

최○○ 올림

(나) 고쳐 쓸 내용

- 띄어쓰기의 오류 정정
 - ① 한가지 → 한 가지
 - ② 건의드리고자 → 건의 드리고자
- 잘못된 표기
 - ① 씁니다 → 드립니다.
 - ② 증가가 → 증편이
- 단어 첨가
 - ① 시간만이라도 줄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

친구 이름	구분	번호	부문	조언
박민수	좋은 점	①	표현	띄어쓰기를 잘 고침.
		②		어법에 어긋난 부분을 잘 찾아냄.
	개선할 점	①	주제	㉠주제와 직접적인 상관없는 내용이 보임.
		②	구성	㉡건의문인 만큼 자신을 소개하거나, 인사말, 감사와 같은 내용을 첨가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음.

<작성 방법>

- (나)를 고려할 때 학생의 고쳐 쓰기 수준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교사의 지도 내용을 서술할 것.
- (다)의 고쳐쓰기 전략을 쓰고, ㉠에 해당하는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찾아 쓸 것.
- ㉡과 같이 고쳐 쓸 때 고려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서술할 것.

【 예시 답안 】

학생은 자신의 글을 문장과 어휘 수준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고쳐 쓸 때는 글 전체 수준부터 고려하도록 한다.

(다)는 돌려 읽기 전략으로 '학교에서~아니었습니다'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삭제해야 하며, ㉡과 같은 내용은 건의 대상자(독자)를 고려할 때 첨가하여야 한다.

【 채점 기준 】

1	○ (문장과) 어휘 수준 - 1점 ○ 글 전체 수준 - 1점
2	○ 돌려 읽기 - 0.5점 ○ 학교에서~아니었습니다. - 1점



○ 독자를 고려 - 0.5

5. 다음은 현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담은 건의하는 글을 쓴다는 학습 목표로 수업하고자 한다. 아래의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4점]

(가)

민 수 :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학교는 축제 때 정말 아무것도 안하는 거 같아. 주변 대학과 비교할 때 정말 실망이다.

도 현 : 맞아. 그리고 교수님들이 휴강할 명분이 없으시니 축제도 그냥 지나가도 공부도 안되고…….

성 민 : 차라리 학생님께 학부 전체에 공식적으로 휴강 일정을 잡아 달라 건의 드리면 어떨까? 우선 수업이라도 안하면 축제 때 다른 일을 해 볼 수 있잖아.

민 수 : 그거 좋은 생각이다. 주변 상가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고, 타 대학과의 비교를 통해서 주장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도 현 : 그런데 정말 축제한다고 주변 상가와 지역 경제에 이바지 되는 거 맞아? 그냥 수업 안 듣고 싶은 걸로 보이지 않을까. 실제로 수업을 하는 것을 원하는 학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학생님께 건의하는 것인데 좀 신중해야할 거 같은데…….

성 민 :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선 내가 건의문 작성해 볼 테니, 너희들은 기대하고 기다려봐.

(나)

학교 축제 때 휴강을 해 주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학교 공식 축제 기간에 수업을 진행하고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변 대학교에 비해 우리 대학의 특성이 사라지고, 대학가의 상업 구간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의 학부마다 자율적인 수업 운영 방침 때문에 일관된 학사 일정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제 기간 동안 만이라도 공식적인 휴강 일정을 잡아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축제 기간 동안의 휴식은 이후 학업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오르고, 더 나아가 주변 상가 및 지역 경제에 큰 이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를 위해 이 문제를 꼭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일년에 한 번뿐인 축제 때 휴강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저희의 학교생활이 한결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년 4월 20일

김재희 올림

<작성 방법>

- (나)에서 건의문의 형식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할 것.
- 건의문 쓰기의 장르를 고려할 때 ○에서 드러나는 글쓰기 특징이 무엇인지 쓸 것.
- (나)에서 필자가 제시한 대안 제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가)를 고려하여 두 가지 서술할 것.

【 예시 답안 】

건의문에 인사말과 자기 소개 부분이 누락되었다. 건의문은 특정 독자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해당 부분을 밝혀 예의를 갖춰야 한다.

건의문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써야 하며 해결 방안을 요구할 때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도덕적인 것인지 고려하여 써야 한다.

건의문에서 제시한 해결안은 충분한 공식성을 대변하지 못한다. 또한 휴강을 하는 것만으로 축제에서 즐거움을 찾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다는 점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 해명 기준 】

- | | |
|---|--------------------------------|
| 1 | ○ 자기 소개와 인사말 누락 - 1점 |
| | ○ 건의 대상(특정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글) - 1점 |
| 2 | ○ 사회적 책임 - 1점 |
| | ○ 공식성과 합리성 고려하여 서술 - 1점 |



적중 사례 4

10. (가)는 ‘매체 특성에 맞게 표현하기’ 단원에 대한 쓰기 수업계획의 일부이고, (나)는 교사의 수업 성찰 일지이다. (가)의 ‘교수·학습 활동 및 유의점’과 관련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수업 계획

- 학습 목표 :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
- 학습 활동 : 학교생활에 관한 문제를 바탕으로 공익 광고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유해 보자.
- 교수·학습 활동 및 유의점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유의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제작의 과정과 방법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제작의 과정 알기 - 영상 언어의 구성 요소 설명하기 - 기획안과 스토리보드 설명하기 • 모듈별로 공익 광고 기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의도를 설정한 후 기획안 작성하기 - 기획안을 바탕으로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언어는 매체 언어로서 ㉠ 복합 양식적 특성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며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 모듈 내 협의와 ㉡ 다른 모듈과의 협의를 통해 기획안과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 광고 촬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에 대해 설명하기 - 카메라로 영상 촬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언어의 복합 양식적 특성을 고려하며 촬영하도록 지도한다. • 기획안과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촬영한다.

(나) 수업 성찰 일지

공익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쓰기 수업을 준비하는 것은 전통적인 쓰기 수업만 담당해 왔던 나에게 큰 도전과도 같았다.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글쓰기와, 영상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공익 광고 영상 제작은 표현 과정과 표현 방법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익 광고는 촬영하기와 편집하기라는 표현의 과정을 거친다. 전통적인 글쓰기의 경우 필자는 다양한 수사적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반면에 공익 광고의 생산자는 카메라를 통해 영상 언어로 생각을 표현한다. 나는 2차시의 촬영하기 수업에서 ㉠ 영상 언어의 시각적 요소를 표현하려면 카메라의 어떤 요소들을 조절하며 촬영해야 하는지, 청각적 요소를 어떻게 녹음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전통적인 글쓰기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 수업에서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대화를 매우 강조했다. 이 수업에서도 글의 의미는 필자와 독자 간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는 작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작문 이론에 따르면 글을 쓴다는 것은 필자와 독자 간의 능동적인 의미 협상의 과정에 해당한다. 나는 이 이론을 반영하여 광고 영상은 글에, 생산자는 필자에, 수용자는 독자에 대응시킨 뒤에 모듈 간 협의를 실시하였다.

<작성 방법>

- ㉠이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고, ㉡에서 교사가 들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 1가지를 서술할 것.
- (나)에 근거할 때, 교사가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작문 이론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 이론의 관점에서 ㉡의 활동이 지닌 의의를 ‘다른 모듈’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3. 다음은 독서 교수·학습 계획에 대한 교사의 고민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다. 다음의 대화를 읽고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고, ㉡에서 드러나는 문식성(Literacy)을 쓰시오. [2점]

(가)

□ 공 교사의 교수·학습 자료

학년(군)	국어 자료의 예
중학교 1-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식적 상형의 발표 - 설득 전략 드러나는 연설, 강연, 광고 - 표준문법과 시의성이 반영된 뉴스, 신문 - 동일한 글감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지닌 기사문, 사설 - 복합 정보에 대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한 설명문
고등학교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매체에서 찾은 정보 - 개인적 관심사에 대해 설명하는 글 - 사회 문제와 쟁점에 대한 토론 자료 - 지역 사회의 문제나 시사적 쟁점에 대하여 다룬 인터넷 게시판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글

□ 김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

과정	교수·학습 활동
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흥미, 수준에 맞는 과제 제시하기 * 디지털 맥락 고려한 과제 제시하기
정보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목적에 맞는 텍스트 선정하여 읽기 * 과제 내용을 예측하여 다양한 매체 텍스트 읽기
심화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의 부정확한 표현 지적하기 * 감정에 치우친 낱말 파악하고 필자의 의도 분석하기 * 매체 표현 양식에 따라 달라진 메시지 파악하기 * 필자의 관점과 의도, 목적 평가하기 * 텍스트 자료의 웹사이트, 개발자의 전문성 평가하기

(나)

김 교사 :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수준까지 활용하고, 어디부터 제한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공 교사 : 교과서에는 주로 정정이나 설명적 텍스트가 많이 제시되어서 한정적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인가요?

김 교사 : 네, 더불어 학생들의 정의적 요인을 고려한 의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학생의 독서 발달상의 특징’ 결과를 보면 중학교 시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읽기 동기와 태도가 감소하는 문제가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읽기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로 얻은 텍스트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 교사 : 그러시군요. 저도 선생님의 고민에 공감합니다. 문자 언어를 넘어서 시각 이미지, 영상, 소리 등의 다양한 언어로 의미가 구성된 다층적 성격의 그 자료들을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미래의 생활에서 자신의 강점인 언어 양식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독자로 성장하게 돕는다는 큰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을/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하는 것은 정선되어 있지 않아서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활동 계획에서 ‘심화 읽기’ 활동이 눈에 띄는데요. ㉡의도가 있으신가요?

김 교사 : 단편적으로 매체의 개별 특성을 이해하는 학습에서 그치지 않고 저자, 목적, 청중과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정보 제공자가 되고, 무엇이든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이 얻은 정보를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읽기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 예시 답안 】

- ㉠ 복합 양식 텍스트
- ㉡ 비판적

4. 다음은 작문의 교수·학습 접근 방식을 두고 교사 간의 협의 내용을 (나)처럼 제시한 것이다. (가)의 수업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박 교사의 수업 계획



학습 목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수필로 쓸 수 있다.		
쓰기 과제	작문의 절차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살려 수필 쓰기		
교수 학습 활동	도입	주요 내용 설명	- 작문 과정과 주요 활동 이해하기 - 작문의 절차 - ㉠작문 과정의 특징 이해
	전개	준비과정	- 작문 상황 분석하기
		활동 과정 1	- 작문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과 시범
		활동 과정 2	- ㉡학생의 작문 활동과 교사의 지원
정리	수업 활동 정리	-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하기 - 평가하기 및 작문 과정에 대한 통합적 지도하기	

(나)

김 교사 : 작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작문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 접근인데, 박 선생님께서는 그 점을 고려하여 수업 계획을 세우셨군요.

박 교사 : 네, 하지만 방법만 고민한 나머지 정작 학생이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필요한 지식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 교사 : 그렇다면 수업 계획에서 도입 단계에서 ㉡글의 형식과 유형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요. 그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도 추가하세요.

박 교사 :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 교사 : 제 생각에도 그러면 좋을 거 같네요.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박 선생님의 작문 과정은 개인으로서 의미 구성이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 의미 구성은 담화 공동체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측면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를 위해 ㉢협조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전략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요.

박 교사 : 아 그럼 활동 과정 2에서는 그런 활동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방법>

○ ㉠에서 교사가 가르칠 만한 작문 과정의 특징(기능)을 두 가지 서술하고, ㉡에서 활용할 교수학습 방법(모형)과 그 의미를 서술할 것.
○ ㉢과 관련한 교수 접근법과 지식을 쓰고, ㉣에서 말하는 작문 전략을 쓸 것.

【 예시 답안 】

㉠에서는 의사소통의 기능(성격)과 회귀적 기능(성격)을 설명할 수 있으며, ㉡에서는 현시적 교수법을 활용하여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에게로 책임 이양이 되도록 하는데 의미를 지닌다.
㉢과 같은 지도를 장르 중심 접근 지도라 하며 장르 지식을 강조한다. ㉣은 대화하기 전략을 말한다.

【 채점 기준 】

1	○ 의사소통 기능과 회귀적 기능 - 1점 ○ 현시적 교수 / 책임 이양 - 1점
2	○ 장르중심접근지도 / 장르지식 - 1점 ○ 대화하기 전략 - 1점

【 채점 기준 】

1	㉡ 복합 양식 텍스트
2	㉢ 비판적 문식성

6. 다음은 독서와 관련한 어느 고등학생의 고민과 그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4점]

(가) 영민이의 일기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다. 엄마, 아빠도 그래서 종종 시립 도서관에 나를 데리고 가서서 여러 책을 읽도록 기회를 주셨다. 어느덧 중학생이 된 뒤로 난 책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특했지만 이 책 저 책 마구잡이식으로 읽는 것도 아닌 거 같고, 그렇다고 선생님이 보라는 책만 보기에는 재미도 없고 읽기가 싫었다. 도대체 책을 스스로 찾아 읽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나)

영민 : 요즘 우리는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야. 그래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은영 : 맞아. 그런데 진로와 관련한 서적들이 많이 있잖아? 그 책들 중에서 내 생각엔 자신의 진로 탐색과 관련하여 찾아 읽을 필요가 있다고 봐.
 영민 : 그렇네. 그럼 난 파일럿이 꿈이니까, 파일럿의 일대기를 다룬 내용이나 파일럿 직업이 되기 위한 과정을 다룬 책을 찾아봐야겠어.
 은영 :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무턱대고 찾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거 같아. 출처도 분명하고 저명한 저자가 쓴 공신력있는 글을 찾는 것이 중요해. 요즘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해서 글을 찾아 읽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가 잘못된 경우도 많더라고.
 영민 : 그래? 난 시간이 없을 때는 인터넷을 주로 활용해서 블로그나 검색 결과를 많이 읽는데 조심해야겠어.
 은영 : 응 이왕이면 독서 목록집을 만들어서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
 영민 : 독서 목록집을 만들면 좋겠구나. 은영아. 너 내일까지 목록집 만들어서 선생님께 함께 가볼래?
 은영 : 좋아

(다)

선생님 : 응, 은영이와 영민이가 어인 일로 찾아왔을까.
 영민 : 선생님, 제가 진로와 관련하여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책들을 읽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요. 은영이와 상의한 결과 독서 목록집을 만들어서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자고 했어요.
 은영 : 네, 선생님. 저도 여러 책들을 조사하고 적어보았는데요. 사실 보고 싶은 책도 많지만,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보를 잘 다룬 웹문서도 많아서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 와, 둘 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우선 영민이는 가지고 온 목록집에 도서 목록을 보니 잘 찾은 거 같다. 다만 이 목록에 제시된 책은 파일럿과 관련한 진로 탐색과는 좀 거리가 먼 거 같은데. 선생님이 이 다음에 책을 더 소개해 줄게. 그리고 은영이는 웹문서를 읽어도 되는 지가 궁금하다는 것이지? 선생님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라고 봐. 출처가 분명하고 인용 부호를 제대로 제시한 글이라면 읽어도 좋을 거야.
 은영 : 선생님 그런데요. 인터넷에서 글을 읽는 게 더 재미있어요. 동시에 여러 글을 빠르게 읽을 수도 있고, 시각 자료도 더 풍부해서요. (A)
 선생님 : 맞아. 아무래도 문자 언어가 중심이 된 책보다는 더 전달력이 크다. 은영이 말처럼 여러 글을 동시에 읽을 수 있으니 읽는 방법에도 조언을 좀 해줄까. ㉠하나씩의 글을 독립적으로 보지 말고 여러 글을 비교해서 화제와 관련된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보렴. 그리고 읽었던 여러 글을 비교하여 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재구성해서 독서 일지를 써 보는 것이 좋단다.
 영민 : 선생님 그렇게 읽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 선생님이 알려 준 대로 읽다보면 너희들이 새로운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고, 하나씩의 글을 읽을 때보다 더 깊고 넓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란다.

<작성 방법>

- (가)와 (나)를 비교하여 좋은 글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쓸 것.
- (다)의 (A)를 고려하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글 읽기의 성격(특징) 두 가지를 서술할 것.
- 밑줄 친 ㉠의 읽기 방법과 그 의의(효과)를 서술할 것.

[예시 답안]

좋은 글은 읽기 목적에 부합하며 글의 가치가 인정되는 글을 말한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글 읽기는 복합 양식성을 드러내며, 하이퍼링크(텍스트)의 성격을 드러낸다.
 ㉠에서 제시한 읽기 방법은 주제통합적 읽기 방법이다. 이는 여러 관점이 드러나는 다양한 글을 통합하여 새로운 사고(독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효과)를 지닌다.

【 개념 기준 】

1	○ 독서 목적 / 글의 가치 - 1점 (부분점수 없음) ○ 복합 양식성 / 하이퍼링크(텍스트) - 1점 (각 0.5점)
2	○ 주제 통합적 읽기 - 1점 ○ 창의적 사고(독해) - 1점



적중 사례 5

3. (나)는 SQ3R의 방법으로 (가)를 읽은 후 이루어진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 읽기 방법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읽기 자료

사서(四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유교는 동아시아의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유교 이론의 원천이 바로 사서이다. 그 속에는 중국인, 나아가 고전을 통해 생활의 지혜와 인생, 자연과 사물을 음미하고 성찰했던 동아시아인들의 사유 양식, 철학·종교에 관한 지식 및 정보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특히 사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네 권의 책이 하나의 완결된 유교 지식 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주희는 사서를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순서로 읽을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 그는 왜 대학을 처음에 두었을까?

대학은 유학의 학문적 목적과 정치의 근본을 밝힌 책으로, 유학의 기본 취지와 실천 강령을 가장 체계적으로 밝혀 빼어난 유교 입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짐을 찾기 위해 먼저 기초를 탄탄하게 닦아야 하는 것처럼, 대학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다양한 경전의 내용을 각각의 조목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다음에는 논어를 읽게 하였다. 논어는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이 담긴 어록이다. 공자와 그 제자들이 유교의 이상인 대학의 도를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른바 유교 이론의 구체적인 실천이 생생하게 담긴 자료집이다.

맹자가 세 번째가 된 것은, 맹자는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가르침을 계승 확장하는 형태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희는 대학을 읽고 학문적 지향점을 찾은 후에 논어, 맹자를 읽으면 그 내용이 쉽게 이해된다고 하였다.

그런 후에 중용을 읽으면 된다고 하였다. 중용은 인간과 사물의 근저에 있는 추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기에, 다른 경전을 먼저 읽고 이것을 맨 마지막에 읽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학이 인간과 사물을 정면에서 바라보도록 한 것이라면, 중용은 그 이면을 성찰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나) 교사와 학생의 대화

교사: 지난 시간에는 ㉠ KWL 방법을 이용하여 글을 읽어 보았지요. 오늘은 ㉡ SQ3R 방법을 활용하여 '사서(四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글을 읽어 보았는데, 어땠어요? SQ3R 방법을 사용한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 선생님, 저는 글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제목과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사서를 읽는 방법을 설명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목이나 대강 살펴본 내용을 보면서 궁금한 점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교사: 어떤 점들이 궁금했지요?

학생: 사서는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지? 이 순서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점이 궁금했어요. 그런 다음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교사: 글은 어떻게 읽었어요?

학생: 글을 읽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각 단락의 핵심어와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글을 읽었어요.

교사: 글을 다 읽고 난 뒤에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학생: 되새기기 활동을 수행했어요. 글을 읽기 전에 만든 질문 말고 이 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질문을 몇 가지 더 만들어 보았어요.

교사: 그다음에는 무엇을 했나요?

학생:

㉢

교사: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지금까지 수행한 읽기 활동을 들어 보니 보완해야 할 활동이 있네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 볼까요?

<작성 방법>

- ㉠, ㉡의 공통점을 방법적 측면에서 2가지 제시할 것.
- [A]를 볼 때, 교사가 지도할 내용 1가지를 쓰고, ㉢에서 학생이 수행해야 할 활동 1

5. 다음을 지문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4점]

(가)

- ㉠ 문화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한다고 할 때 필수적인 것은 '좋은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끊임없이 사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문화를 '좋은 문화'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 ㉡ 좋은 문화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이든 하나뿐일 수는 없다. 하나의 잣대만으로 좋은 문화를 정의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문화는 나쁜 문화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독선이다. 그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단 하나의 기준만으로 문화를 평가하는 사회에서 좋은 문화가 창조될 수는 없다. 그런 사회일수록 문화를 규제하는 검열의 칼날이 매섭고 금지와 억압의 족쇄가 무거운 법이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하나의 잣대로 문화를 재단하면서 검열과 금지의 족쇄를 휘둘러 온 나라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의 문화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창조력의 빈곤으로 허덕이고 있다.
 - ㉢ 어느 사회에나 '좋은 문화'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 그 기준들은 사회 내에 공존하면서 갈등하고 경쟁한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은 각기 나름의 조건에 따라 나름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맞추어 나름대로 '좋은 문화'를 판단한다. 세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혹은 직업이나 계층에 따라, 교육 수준에 따라 각기 자신에게 '좋은 문화'를 선택한다는 말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기준이나 취향에 대해 관용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럴 때라야 사회 전체의 문화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은 문화'라는 자신의 판단이 정말로 내 스스로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말로 이것이 나의 삶의 조건과 욕구에 합당한 것이며, 진정 나의 삶을 풍요롭고 주체적인 것으로 만들어 줄 문화인가 하는 의문이다. 어쩌면 내가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이 단지 문화산업의 광고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사람들의 문화 행태에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것은 아닌지라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판단 기준은 많은 경우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특히 매스미디어와 문화 산업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 '좋은 문화'에 대해 몇 가지 윤리적이거나 미학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도 아닐 뿐 아니라 그다지 의미도 없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이 향유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얼마나 삶을 풍요롭고 복되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내 자신의 삶이 고립된 삶이 아니라 사회적인 삶일지대 당연히 그 문화는 사회적으로도 '좋은 문화'여야 한다. 나 자신의 삶을 위해 좋은 문화라는 것이 어떤 개인적 쾌락이나 이기적 욕심을 충족시키는 문화라는 뜻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 사회 전반이 좀 더 민주화되고 좀 더 평등하게 되고 좀 더 통일이 가까워지고 좀 더 평화로워지는, 말하자면 '좋은 문화'란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과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여야 한다. 결국 그것은 단지 문화적 차원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기본자세와 관련되는 문제인 것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늘 높은 사회와 좋은 문화를 생각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이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바로 우리들 스스로 문화적 주체로서 자신을 세우는 일과 같은 것이다.
- <김창남, '문화적 주체가 되기 위하여'>

(나)

□ 활동지 학생의 작성 답안

- (1) 전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를 찾아 보자.
- (좋은 문화)
- (2) 각 단문별 중심 내용을 적어보자.

	중심 내용
㉠	좋은 문화란 무엇일까.
㉡	좋은 문화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좋은 문화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회별, 집단별로 다른가.
㉣	좋은 문화에 대한 판단 기준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	좋은 문화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가져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 중심 문단을 찾고, 필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보자.

<작성 방법>

- (가)를 읽고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 읽기 전에 활용할 만한 전략 두 가지를 활동지



가지를 제시할 것.

(1)과 (2)를 고려하여 서술할 것.
 ○ 활동지 (3)과 관련하여 중심 문단을 찾고 필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의 첫 어절을 찾아 쓸 것.

【 예시 답안 】

(가)에서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자세히 읽기 전에 훑어본다. 또한 문단별로 글의 내용을 예측하여 질문을 생성하여 본다.
 [답] 문단이 가장 중요한 문단으로 '결국'이후부터 필자의 '좋은 문화'의 판단 기준에 대한 의도가 드러난다.

【 개념 기준 】

1	○ 훑어보기 - 1점 ○ 질문하기 - 1점
2	○ [답] - 1점 ○ 결국 - 1점

1) 글 전체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1>

▶ 다음 글을 읽고, 중심 문단을 찾고 중심 내용을 말해 보자.

해답 : 중심 문단 - 다섯째 문단
 중심 내용 - 좋은 문화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개인과 사회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해설 :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문단 - 문화 현실에 대한 비판은 좋은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문단 - 좋은 문화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하나가 아니다.
 셋째 문단 - 좋은 문화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회별, 집단별로 다르다.
 넷째 문단 - 좋은 문화에 대한 판단 기준은 주체적인가가 중요하다.
 다섯째 문단 - 좋은 문화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복되게 하는가와, 더불어 사는 사회에 얼마나 바람직할 수 있는가로서 설정되어야 한다.
 이들 문단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섯째 문단의 여섯째 문장인 '결국' 부터의 내용은 화제가 바뀌어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가 된다. 그러나 앞의 전체 내용으로 볼 때, 독립된 문단으로 설정되지도 않은 이 부분을 글 전체의 중심 내용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앞서의 문단에서 계속 반복된 화제를 중심 화제로 하고, 이에 대한 주요 서술을 담아 중심 내용을 결정한다.

SQ3R

SQ3R 모형은 전통적이고도 대표적인 읽기 학습 체계이자 전략이다. 로빈슨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 모형은 추후 수정을 통해 여러 모형으로 변형되면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읽기 학습을 돕는 방법으로 오래도록 활용되었다.
 SQ3R을 지도할 때 각 단계가 상호보완적이며 회귀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후 SQ3R의 변이형이 제안되기 시작하는데, CSQ3R이 그 예이다. CSQ3R은 기존의 SQ3R에 '시각 바꾸기'를 추가한 것으로, 기존 방식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 SQ3R 모형의 절차

절차	교수학습 활동
훑어보기	- 제목 중심으로 훑어보기 - 주제어 중심으로 훑어보기 -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예측하기
질문하기	-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 읽기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하여 질문 만들기
읽기	- 텍스트의 각 부분의 의미를 연결하며 읽기 - 텍스트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며 읽기
확인하기	- 중요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보기 - 독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텍스트 내용 파악하기
재검토하기	-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읽기 -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적절한지 평가하며 다시 읽기

2 수업의 실제



단계	SQ3R의 실제 / 교사의 발화·학생의 발화
훑어보기	<p>텍스트를 본격적으로 교수학습하기 전에 단원명, 단원에 실린 제재의 제목, 삽화, 표, 요약, 학습활동 등을 먼저 빠르게 검토한다. 이때 훑어보기 과정에서는 주제어, 개념어를 중심으로 읽는 것이 좋다. 이 활동은 텍스트 읽기의 준비 단계로서, 텍스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예측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학생들에게 수업에 주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p> <p>- 교사의 발화 제목으로부터 이 글의 내용은 지구 온난화와 과학기술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겠어요. 필자는 과학기술이 온난화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라 여기는 것 같아요. 삽화는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일어난 재해 상황에 대해 나타내고 있죠?</p>
질문하기	<p>전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질문을 만든다. 읽기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하고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 하여야 올바른 질문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다.</p> <p>- 교사의 발화 폭풍으로 인해 가옥이 쓰러져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것일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사태인 것 같아요. 이것 말고 온난화로 인한 또 다른 재해 상황은 없을까요? 글을 읽으면서 확인해 봅시다.</p>
읽기	<p>훑어보기 단계보다 좀 더 세밀한 읽기 수행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동시에 전 단계에서 만든 질문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본다. 훑어보기 과정에서 주제어나 개념어를 중심으로 읽기를 진행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문장과 단락을 중심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파악하는 읽기를 진행한다.</p> <p>- 학생의 발화 글을 보니 지구가 뜨거워지면 지구가 반응하여 태풍, 가뭄, 홍수 등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어. 그렇다면 아까 보았던 사진은 온난화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 온난화는 단지 더워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상 저온 현상도 불러온다니 흥미로운걸.</p>
확인하기	<p>글에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확인해 보면서 글을 읽을 때 얻었던 답과 정보들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본다. 이전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쓰게 하여 그 답을 비교하거나 답을 구두로 확인해 보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다.</p> <p>- 교사의 발화 아까 읽은 바로는 온난화가 매우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고 했죠? 이 글의 필자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떠올려 볼까요?</p>
재검토하기	<p>텍스트의 전체적인 내용을 스스로 재구성하며,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재검토해 본다. 글의 목적에 따라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고 올바른 읽기 습관을 위하여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독자는 이 단계에서 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p> <p>- 학생의 발화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여러 자연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 글의 필자는 과학기술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과학기술로는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온난화의 주범인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는 것도 어렵고 설사 막을 수 있다고 해도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인해 더욱 심한 온난화 현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야.</p>

6. 다음은 독서 수업 상황에서 활용한 교재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따라 활동의 의의를 서술하시오. [4점]

■ 학습 목표

- 읽기 목적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이 있음을 이해한다.
- 자신의 읽기 방법이 적절한지 읽기 과정에 따라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는다.

■ 생각해 보기

- 읽기 방법의 점검, 조정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을 말해보자.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	-
-	-

글 읽기

제2차 세계 대전 중, 태평양의 한 전투에서 일본군은 미군 혹은 병사들에게 자신



들은 유색인과 전쟁할 의도가 없으니 투항하라고 선전하였다. 사회학자인 데이비슨은 이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중 매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제3자 효과' 이론을 발표하였다.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이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있다. 곧 사람들은 수용자의 의견과 행동에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 때 어떤 후보에게 탈세 의혹이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다고 하자. 그때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에 자신보다 다른 독자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현상을 데이비슨은 '제3자 효과'라고 하였다.

제3자 효과는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대중 매체가 건강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전달할 때보다 폭력물이나 음란물처럼 유해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크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수용자의 구체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제3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내용물의 심의, 검열, 규제와 같은 법적 제도적 조치에 찬성하는 성향을 보인다.

3 확인하기

- 위 글을 읽고 아래의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해 보자.

글을 읽고 알게 된 사실	더 궁금한 점
-	-
-	-

4 더 생각해 보기

- 이 글을 읽고 공감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그 이유를 작성해 보자.

공감되는 부분과 이유	공감되지 않는 부분과 이유
-	-
-	-

<작성 방법>

- 학습 목표를 고려할 때 활동 **1**이 가지는 두 가지 기능을 서술할 것.
- 활동 **2**이 학습 전략으로 가지는 의의를 서술하고, 활동 **1**가 가지는 독자의 독서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서술할 것.

【 예시 답안 】

활동 **1**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읽기 목적을 명확히 세울 수 있으며, 읽기 전에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

활동 **2**을 통해 독자는 자신이 읽은 경험을 정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또한 활동 **1**는 텍스트에서 벗어나 독자 중심의 비판적 사고(독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채점 기준 】

1	○ 읽기 목적 - 1점 ○ 독자의 배경지식 활성화 - 1점
2	○ 읽기 경험에 대한 정리(확인/점검) - 1점 ○ 비판적 독해(사고) 신장 - 1점

7. 다음은 한 학기 책 한 권 읽기 수업과 관련하여 (가)와 같이 수업 계획을 세웠다. 이를 두고 교사 간의 협의 내용을 (나)처럼 제시하였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4점]

(가) 한 학기 책 한 권 읽기 수업 계획



차시	교과서	수업 지도 내용	창의·인성 요소
1	대단원을 열며 계획하기 단원 한눈에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원에서 배울 내용, 학습 목표 안내하기 학생 스스로 학습 목표 계획하기 	
	책 한 권을 읽자 •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 생각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기 유발 및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능동적 독서의 개념과 능동적으로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주요 내용 학습하기 	
2	1 책 선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이 읽을 책 선정하기 점검표를 바탕으로 선정된 책 평가하기 	인성 책 활동을 통해서 이해하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하기
3	2 책 읽기 전 점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한 책과 관련된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4	3 참고 자료를 찾아서 책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을 능동적으로 읽는 과정 파악하기 읽는 중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법 학습하기 읽는 중 참고 자료 찾아서 정리하기 자신의 읽기 과정 점검하기 	
5	4 책 읽은 후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은 후 활동 파악하기 읽은 후 자료 찾기의 필요성 파악하기 읽은 후 참고 자료 찾아 정리하기 학생 스스로 ①학습 내용 점검·조정하기 	인성 책을 읽은 후 자기 이해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기

(나)

박 교사 : 교과서 활동 '에서 읽기 목적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전략을 소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읽기 전 활동인 만큼 제목이나 날개, 삽화 등의 교과서에 노출된 정보를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이해해보거나 자신의 읽기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전략을 소개하여 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교사 : 교과서 활동 1에서는 읽은 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가 글을 읽고 나서 자신의 읽기 경험을 적층해 나가는 것은 읽기의 포트폴리오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개인의 의미구성이 사회적 의미구성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유하기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네요.

<작성 방법>

- (가)를 고려할 때 (나)의 박 교사가 제시할 만한 독서 전략 두 가지를 쓸 것.
- ①에서 드러나는 인지 기능을 쓰고, 그 성격을 서술할 것.
- (나)의 한 교사가 말하는 활동 두 가지를 제시할 것.

【 예시 답안 】

활동 '에서 예측하기 전략과 KWL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①처럼 읽은 후 독서 맥락(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전략을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인지능이 드러난다.

공유하기 활동으로 독서 워크숍이나 독서 클럽을 운영해 보도록 하며, 포트폴리오 자료로 독서 일지를 작성해 보게 한다.

【 채점 기준 】

1	○ 예측하기 / KWL전략 - 1점 (각 0.5점) ○ 상위인지 / 독서 맥락(읽기 목적)을 고려한 전략 선택과 조정 - 1점 (각 0.5점)
2	○ 독서 일지 - 1점 ○ 독서 클럽(워크숍) - 1점



적중 사례 6

11. (가)~(다)는 교수·학습 상황이고 (라)는 학생의 학습 활동 결과이다. 학생의 학습 활동 결과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성취기준

- [12문학03-02]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

(나) 교수 내용의 요지

자연 친화적 삶의 형상화는 한국 문학의 중요한 전통 중 하나로서, 조선 전기 사대부 문학에는 대표적으로 자연의 의미와 역할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 완상(玩賞)의 대상으로서 감흥이나 즐거움을 느끼게 함.
- ㉡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공간으로서 연군의 정을 느끼게 함.
- ㉢ 도(道)의 구현체로서 삶의 모범을 보여 줌.
- ㉣ 학문의 공간으로서 수양의 환경을 형성함.

이항의 <도산십이곡>은 '언지(言志)' 6수와 '언학(言學)' 6수로 구성되어 있는 연시조로서, '언지'에서는 주로 ㉠과 ㉡이, '언학'에서는 주로 ㉢과 ㉣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다) 학습 활동

※ 다음은 이항의 <도산십이곡>의 일부를 순서 없이 배열한 것이다. [A]~[D]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를 파악하여 '언지'와 '언학'으로 구분해 보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적어 보자.

유란이 재곡하니 자연이 듯디 조희 백운이 재산하니 자연이 보디 조혜 이 중에 피미일인을 더욱 닳디 못하에	A
청산은 엇제하여 만고에 프르르며 유수는 엇제하여 주야에 굶지 아니노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 흐리라	B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에 병으로 늘거 가늌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C
천운대 도라드러 완락제 소쇄흔디 만권 생애로 낙사 무궁흔애라 이 중에 왕래풍류를 닳디 므슴 홀고	D

(라) 학습 활동 결과

구분	판단 결과	
A	'유란'과 '백운'을 보면서 감흥을 느끼는 가운데 임금으로 추정되는 '피미일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언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①
B		②
C	'연하'와 '풍월'로 표상되는 자연을 완상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태평성대를 누리고자 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언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③
D	자연과 어우러진 '천운대'와 '완락제'의 '소쇄'한 풍경을 보며 풍류를 즐	④

7. 다음은 '수용과 생산'이라는 대단원의 교수·학습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따라 교사의 지도 내용을 서술하시오. [4점]

(가)

이런들 엇더허며 더련들 엇더허료.
초야우생(草野遇生)이 이리타 엇더허료.
홍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터 므슴허료.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가늌.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고인(古人)도 날 문 보고 나도 고인(古人)을 문 보.
고인을 문 보도 ㉠년던 길 알피 잇나.
년던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당시(當時)에 녀든 길을 몇 히를 불러 두고,
어디 가 둔다가 이제야 도라온고.
이제야 도라오나니 년 디 므슴 마로리.

이항, 「도산십이곡」중에서

(나)

黃金酒(황금주) 柏子酒(백즈주) 松酒醴酒(송주례주)
竹葉酒(죽엽주) 梨花酒(리화주) 五加皮酒(오가피주)
鸚鵡羹(잉무산) 琥珀盃(호박비)에 7득 브어
위 勳上(권상)스景(경) 그 엇더하니잇고
劉伶陶潛(유령도중) 兩仙翁(양선옹)의 劉伶陶潛(유령도중) 兩仙翁(양선옹)
위 취흔스景(경) 그 엇더하니잇고

한림제유, 「한림별곡」중에서

(다)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은 도산노인(陶山老人)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를 지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체로 음란함이 많아 족히 말할 것이 못된다. 이를 테면 <한림별곡>과 같은 문인의 입에서 나왔으나, ㉠호기를 자랑하여 방탕하며, 아울러 무례하고 거만하며 희롱하고 친압(親狎)하는 것으로서, 더욱이 군자로서 마땅히 숭상할 바가 못된다. 오직 근세에 이별(李龜)의 '육가(六歌)'란 것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는데, 오히려 그것이 <한림별곡>보다 낫다고 하나 또한 세상을 놀리는 불공(不恭)한 뜻이 있고 온유둔후(溫柔敦厚)한 실속이 적어서 애석하다.

노인이 본디 음율(音律)을 알지 못하나, 오히려 세속의 음악을 듣기 싫어할 줄은 알아서, 한가롭게 지내며 병을 요양하는 여가에 무릇性情(性情)에 감동되는 것이 있으며 늘 시(漢詩)로 퍼냈다.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읊을 수는 있으나 노래할 수가 없다.

이항, 「도산십이곡 발(跋)」

<작성 방법>

- (가)에서 ㉠과 대비되는 시어를 찾아 화자의 삶에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서술할 것.
- (다)를 고려할 때 (가)와 (나)의 공통된 향유 방식을 서술하고, ㉠처럼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성격을 고려하여 서술할 것.

[예시 답안]

㉠과 대비되는 시어는 '어디'로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에 묻혀 학문 수양을 하는 삶과 다른 속세의 삶(벼슬길)에 해당한다.

(가)와 (나) 모두 가창의 노래였다든 점에서는 공통적이거나 (가)에 비해 (나)의 갈래가 가지는 향락적인 성격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해설 기준]

1	○ 어디 - 1점 ○ 학문 수양의 길 - 1점
2	○ 가창방식 - 1점 ○ 향락적 성격 - 1점

도산십이곡 陶山十二曲

맥락: 도산서당의 교가

<도산십이곡>은 퇴계 이항이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와 도산서당에서 후진을 양성할 때 지



연에 동화되고 학문에 정진하려는 자세를 노래한 연시조이다. 송나라 진덕수(陳德秀)가 유교 경전과 송나라 도학자들의 저술에서 심성수양에 관련된 글을 뽑아 엮은 『심경(心經)』을 읽은 퇴계가 감발흥기(感發興起)한 체험을 바탕으로 지은 노래라는 설명도 있다(최재남, 2003). 『퇴계집(退溪集)』을 보면 <도산십이곡발(陶山十二曲跋)>이라 하여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아래와 같이 직접 밝히고 있다.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은 도산노인(陶山老人)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를 지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체로 음란함이 많아 죽히 말한 것이 못된다. 이를테면 <한림별곡>과 같은 문인의 입에서 나왔으나, 호기를 자랑하여 방탕하며, 아울러 무례하고 거만하며 희롱하고 친압(親狎)하는 것으로서, 더욱이 군자로서 마땅히 숭상할 바가 못 된다. 오직 근세에 이별(李麗)의 '육가(六歌)'란 것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는데, 오히려 그것이 <한림별곡>보다 낫다고 하나 또한 세상을 놀리는 불공(不恭)한 뜻이 있고 온유둔후(溫柔敦厚)한 실속이 적어서 애석하다.

노인이 본디 음율(音律)을 알지 못하나, 오히려 세속의 음악을 듣기 싫어할 줄은 알아서, 한가롭게 지내며 병을 요양하는 여가에 무릇 성정(性情)에 감동되는 것이 있으며 늘 시(漢詩)로 퍼냈다.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읊을 수는 있으나 노래할 수가 없다. 만약 노래할 수 있도록 하자면 반드시 이속(俚俗)의 말[우리말]로써 엮어야 하니, 대개 우리나라의 속음절(俗音節)[음악]이 그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이별(李麗)의 노래를 간략히 본떠서 <도산육곡(陶山六曲)>이란 것을 들 지었는데, 그 하나는 뜻을 말한 것[言語]이요, 다른 하나는 학문을 말한 것[言語]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혀 노래하게 하고, 안식에 기대어 듣고자 하며,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춤추며 뛰게 하고자 함이니, 행여 비루한 음악을 썼어냄으로써 감발(感發)되고 융통(融通)하게 할 수 있다면,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돌아보니 지난 행적이 자못 어그러져서 이와 같은 한사(閑事)로 인하여 혹 시끄러운 일의 실마리를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다. 또 그것이 강조(降調)에 들어 음악의 절주와 화합할 수 있는지도 자신할 수 없다. 짐짓 한 벌을 베껴서 상자에 넣어두고 때때로 꺼내어 완미(玩味)하여 스스로 살피기도 하며, 또 다른 날에 보는 사람의 버리고 취함을 기다리고자 할 따름이다.

가정(嘉靖) 44년 을축년[명종 20년: 1565] 모춘(暮春) 기망(冀望)에 씀.

<도산십이곡>은 전체 12수의 연시조로서 이는 다시 둘로 나뉜다. 앞의 6수를 '전육곡(前六曲)', 뒤의 6수를 '후육곡(後六曲)'으로 부른다. 전육곡에 해당하는 '언지'는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을, 후육곡에 해당하는 '언학'은 자연을 달아가고자하는 마음과 학문을 향한 변치 않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자연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드러낼 때는 향유와 풍류의 대상이자 심미적 대상으로 표현되고, 그것을 본받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낼 때는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깨달음을 주는 대상으로 표현된다.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저절로'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일러주는 보고(寶庫)가 되는 것이다(김대형, 2009). 전육곡과 후육곡에 이러한 각각의 자연관이 반영되어 있다. 도산서당에서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자연의 가르침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노래를 창작했다면, 이는 도산서당의 교가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쟁점: '언지'와 '언학'의 차이

시조는 본연지성(本然之性)의 시조와 기질지성(氣質之性)의 시조로 구별되기도 하고(조동일, 1978). 이기철학의 양분법에서 본연지성은 불변성을 지닌 이(理)를, 기질지성은 가변성을 지닌 기(氣)를 추구하는 입장을 뜻한다. 그리고 객관화는 논리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보편적 설득력을 지향하는 태도를, 합일화는 감정이입의 밀착도를 바탕으로 참신성을 지향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구분에서 그 명칭은 서로 다르나 내포는 대체로 일치한다. 본연지성의 시조와 객관화 지향의 시조는 주로 문화의 도덕적·교훈적 효용을, 기질지성의 시조와 합일화 지향의 시조는 주로 개인적 감정의 표현을 추구하는 작품군을 가리킨다.

<도산십이곡>은 위의 기준에 따르면 본연지성의 시조, 객관화의 시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거론된다. 이호아는 자연의 외형적 아름다움에 주목하지 않는 대신, 물성을 지향하여 그것이 함의하는 추상적 자질을 중시하였다(최홍원, 2006). 어느 한 지역의 특정한 대상물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자연을 문학적 소재로 하였으며, 대상 그 자체의 특징과 실재는 대상이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선택적으로 추상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즉, 각각의 소재가 지닌 의미를 불변적 이법(理法)으로 추상화한 것이다. 이는 개인적 발상의 참신성보다는 보편적 소통의 용이성을 추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과 관련하여 쟁점으로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언지'와 '언학'의 관계이다. 언지와 언학의 전체적인 통일성에 주안점을 두면 언지와 언학에 담긴 자연이 성격이나 전개 구조를 같은 결로 읽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언지는 자연-사회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병치, 대조, 점층의 원리에 의해, 언학은 배움의 당위성과 연속성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점층, 대조의 원리에 의해 짜인 것으로 보는 견해(성기욱, 2002)가 이를 보여준다. 이 견해에 따르면 <도산십이곡>전체를 강호시가에 포함시켜 다룰 수 있다.

이와 달리 두 6수에 담긴 자연의 성격이나 전개 구조를 다른 결로 읽어내면, 언지와 언학의 독립성이 커지고 전체적 통일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오늘날은 <도산십이곡>이라 부르고 있으나 작품이 유포될 당시만 해도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이라고도 불렀다는 점, 이항 자신이 직접 <도산십이곡발>에서 이별(李麗)의 '육가'를 모방하여 <도산육곡>들을 지었으니 첫째가 언지

기는 감흥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언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 방법>

- ②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할 것.
- ①, ③, ④에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찾고, 그 이유를 서술할 것.



이고 둘재가 언학이라고 한 점은 둘을 다른 틀로 바라볼 합리적 근거가 된다.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도산십이곡>12수에 대한 해설 중심의 연구들(서원섭, 1974; 이가원, 1989; 이동영, 1998)은 전체적 구조의 유기성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각 수의 개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은연중에 통일성보다는 독립성을 지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도산십이곡>12 수 중 전육곡, 즉 언지만을 강조시가로 보고, 언학은 강조시가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전후 육곡의 통일성에 주목하면 각각의 개별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각각의 독립성에 주목하면 작품의 전체성을 어떻게 수렴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각각의 독립성에 주목하면 작품의 전체성을 어떻게 수렴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언지와 언학이 각각의 제명을 부여받은 이상 그것을 하나의 틀로 재단하는 것은 작가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서 혹은 섭리에 대한 태도의 표백이라면, 후자는 그 질서 혹은 섭리에 이르는 방법으로서의 학문에 대한 관점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꼼꼼히 읽기: 노래로 쓴 수양 선언문

이항은 기존의 시를 비판하면서 '온유돈후(溫柔敦厚)'한 시를 내세웠다. 온유돈후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데 인정이 두터움을 일컫는 말로 기교를 부리거나 노골적인 표현이 없는 것을 이른다. 이항은 이를 시의 본분으로 여긴 것이다. 전체 12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	언지(言志)	언학(言學)
기일	자연 속에 살고 싶은 마음	독서하는 무궁한 즐거움
기이	허물이 없는 삶에 대한 소망	이목 총명한 자세에 대한 소망
기삼	인성의 어질고 순박함	옛 성현들의 삶을 따르려는 의지
기사	자연에서도 임금을 생각함	꾸준한 수양 정진에 대한 의지, 다짐
기오	자연을 멀리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학문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기육	어약연비과 운영천광의 우주적 질서	종로(終老)까지의 노력

먼저 언지에서 제1수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지향을 '천석고황(泉石膏肓)'으로 천명함으로써 전체적인 주제의식을 환기한다. 그리고 제2수에서는 '언하'와 '풍월' 등의 시어를 통해 천석고황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고, 제3수에서는 '순풍'과 '인성'의 가치를 언급하며 이를 사회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제4수에서는 자연 속에 거하면서도 임금을 포함한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과 태평성대에 대한 소망을 지속적으로 간직해야 한다는 사대부적 당위를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서 '미인'은 실제의 임금만이 아니라, 이상적 임금인 문왕, 주자, 이상적 인간, 이치의 의인화 등으로 볼 수도 있다(서명희, 2016). 제5수에서는 자신이 거하고 있는 공간, 즉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조화로운 자연에 어울리는 성인에 대한 기대감을 '교고백구'를 통해 드러낸다. 이어서 마지막 수에서는 '어약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의 경지, 곧 대자연의 우주적 조화와 오묘한 이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시상을 마무리한다.

'언지'에서는 이처럼 화자가 거처하고 있는 공간에서 목도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거나, 그러한 자연의 섭리에 어울리는 인간의 이상적 삶에 대한 소망이 주로 나타난다. 이항은 평생도학(道學)을 일으키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가 굳이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의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것은 자연과의 화합을 체험하고 심성을 기쁨으로써 학문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곧,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서 만물의 원리요 핵심인 이(理)가 드러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즐거움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도의(道義)의 근본을 체득한 감격으로 이해하였다(정병현 외, 1998).

'언지' 제6수에서 '사사가흥이 사람과 한 가지'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자아가 자연을 만나면서 느끼는 감정은 순수하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의 구분 없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신연우, 2004). 자연의 본성은 지극히 선한 것이니 인간의 본성도 역시 선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상태가 우주적 섭리임을 선언한 구절이 바로 '어약연비 운영천광'이다. 본래 '중용(中庸)'에 나오는 말인 어약연비는 물고기가 펄펄 뛰고(혹은 뛰니) 솔개가 하늘 높이 난다는 뜻으로, 매우 박력 있고 활달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운영천광은 주자의 시에 나오는 구절로서, 하늘의 빛과 구름의 그림자가 함께 강물 위에 어리는 모습을 뜻한다. 이 모두는 삼라만상의 조화로운 이법이 구현된 상태가 가리킨다. 화자는 이처럼 오묘한 이법의 실현을 소망한다.

이제 언학으로 넘어가보자. 언학에서는 학문을 하려는 기본 자세 위에 자기의 소망을 말한 뒤 학문의 본질을 알려주고 이어 성현의 학문 세계를 꾸준히 탐구해야 한다는 당부를 담고 있다. 제1-3수에서는 배움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제1수의 '만권생애', 제2수의 '이목총명 남자', 제3수의 '고인'이 '녀던 길'이 배움의 당위성을 집약해 주는 시어들이다. 제4-6수에서는 배움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년 디 무음 마로리', '만고상청 흐리라'와 같은 의지적 표현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1, 2, 3수와 제4, 5, 6수 각각에서 배우는 태도의 주체를 작가 자신에서 우리,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확장시키고 있다(성기욱, 2002). 이는 창작의 목적이 개인의 수양만이 아니라 집단적 정서의 유발에도 있다고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자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언지에서와는 달리, 언학의 주제의식은 학문을 왜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청산'과 '유수'라는 자연마저도 학문의 도리를 깨우쳐주는 거울로 인식되는 데서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도산십이곡발〉에서 이황은 자신을 '도산노인'이라고 칭하면서 〈도산십이곡〉을 짓게 된 연유를 서술하였다. 감흥을 주려면 노래로 불러야 하는데 한시는 노래로 부를 수가 없으므로 이숙의 말인 우리말로 노래를 지어야 하며, 이에 '언지' 6수와 '언학' 6수로 이루어진 〈도산십이곡〉을 짓는다는 것이다. 감흥을 불러일으킨다는 데서 문학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문학의 효용론적 가치에 주목한 것으로 보이며, 또 우리말 문학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만한 대목이다(조희정, 2011). 한편 문학적 표현이나 그 자체의 내용보다는 문학이 가지는 목적성에 비중을 두어 내용의 참신성이나 표현의 독창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노래가 이황이 말년에 이룩한 원숙한 수양과 학문의 정신적 기록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학은 사람의 심성을 기르는 데 긴요하다. 물아일체의 경지를 노래한 시 등을 읊으며 심성을 도야할 수 있다는 효용론은 인류의 문학과 함께 이어져 온 생각이다. 그래서 이황은 문장의 수식에 주력한 글이나 과거 시험을 위한 글을 배격하였다. 문장은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로서 숭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문학이 말단의 기예이나, 성정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학을 도구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독창적인 창작으로까지 나아가는 문학적 소양의 확산과 전이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성리학적 도리인 이(理)를 실현함으로써 성정을 다스리고, 내면적 정서의 고양을 통하여 도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에게 문학은 학문적인 수양의 방편이었고(김대행, 198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산십이곡〉은 결국 시조 형식의 노래로 부른 수양 선언문이었다 셈이다.

영어 읽기: 완세불공과 운유돈후의 거리

〈도산십이곡발〉에서 퇴계는 〈한림별곡〉에 대해 '금호방탕'이라 평했고, 이별의 〈육가〉에 대한 평은 비교적 생소하다. 도대체 어떤 작품이기에 퇴계는 이를 완세불공, 즉 세상은 놀리는 불공(不恭)한 뜻이 있다고 평했을까? 그리고 왜 운유돈후가 적다고, 즉 따스하고 부드럽고 도타운 뜻이 부족하다고 했을까?

이별의 〈육가〉는 〈장육당육가(藏六堂六歌)〉라는 제목을 달고 그의 종손 이광윤(李光胤)이 지은 「양서집(養西集)」에 총 6수 중 4수만 한역되어 전해지므로, 그 전모를 알 수 없고 원래의 표현을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중 제2수는 다음과 같다.

赤葉滿山椒 空江春落時(적엽만산초 공강영락시) 온산 가득 붉은 잎이 빈 강에 떨어질 제
細雨漁梁邊 一李眞味滋(세우어기변 일간진미자) 가랑비 내리는 물가에 낚시 재미 좋으시고
世間求利輩 何必要相知(세간구리배 하필요상지) 세상의 구리배들이 이 맛 알기 바라라

자연 속에 거하는 인물이 화자가 되어 노래를 한다는 점에서 〈도산십이곡〉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노래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낚시이다. 세상에 나갈 때를 기다리는 방편으로서의 낚시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 사람들을 모두 '구리배', 즉 이익을 구하는 무리로 통칭한다. 그는 낚시의 재미를 알지 못하는 구리배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존재로서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초탈한듯자 포즈를 취한다. 구리배들에 대해서는 환멸에 가까운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마도 퇴계가 완세불공의 뜻이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요소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어지는 3수에서는 소부와 허유의 고사에 기대어 공명을 현 신발짝에 비유하며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제4수에서는 물이 맑으면 갯끈을 씻고 흐르면 발을 씻는다는 굴원의 〈어부사〉의 표현을 빌려와 청탁을 모르고 나서는 세상 사람들을 조롱한다. 중앙 정계에 대표되는 세사의 이로가 세속의 인간들에 대한 환멸이 여기에서도 보이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인다(조희정, 2014). 세상에 대한 따스하고 부드러운 시선도, 인간을 향한 도타운 마음도 아예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바, 〈장육당육가〉에서 이황이 세상을 놀리는 공손하지 못한 뜻을 잃어낸 단서는 이런 표현들이었을 것이다.

이별의 삶의 이력을 조회해보면 그의 작품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이유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조선 중기의 인물로서, 셋째 형이 김종직의 신원 운동을 벌이다 귀양을 가게 되자 황해도 평산의 육계산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은거하면서 집에 '장육당'이라는 이름을 붙여두고 소를 타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낚시와 수렵을 하고 시도 짓고 술도 마시며 놀았다고 한다.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가 남긴 작품이 바로 〈장육당육가〉이다. 현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은거해야 하는 처지는, 귀거래사를 읊으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다른 재지사족(在地士族)과는 달랐던 것이다(최재남, 1997).

사대부들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했다 하더라도, 그 자연이 모든 사대부에게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 이별과 이황의 두 작품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이 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이별에게는 자연이 세상과의 단절을 위해 세속의 반대편에 설정한 은신의 공간이었다면, 이황에게는 자연이 '무궁'한 '낙사(樂事)'를 제공해주는 공간이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안겨주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황은 이별의 〈장육당육가〉를 본떠서 〈도산육곡〉들을 지었다고 했다. 이황은 이별의 육곡에서 내용은 버리고 형식만을 취했던 것이다. 세상에 대한 환멸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노래에 대해 완세불공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한편, 심신 수양을 위해 갖추어야 할 노래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내세운 것이 운유돈후였다 할 것이다. 시란 모름지기 읽고 읊는 이의 성품을 부드럽고 따스하게 해주어야 하고 안색을 온화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의 미덕은 퇴계의 입장에서 세상을 자연의 이법에 맞게 온전하게 가꾸어야 하는 사대부의 임무와 다르지 않았을 것



로 보인다.



적중 사례 7

8. 다음을 읽고, (가)와 (나)의 서사 전개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하시오. [4점]

(가)

세월이 여유하여 심오 세의 당하여는, 용모 화려하고 효행이 탁월하여 이러한 소문이 원근의 남자하니, 뉘 아니 칭찬하리오? 일일은 심청이 저녁밥을 빌러 가서 일세가 저무도록 중부소식 감감하니 심봉사 홀로 앉아 기다릴 제, 배는 고과 등의 불고 방은 추위 턱이 덜덜 떨리는데, 원사의 쇠북 소리 은은히 들리거늘 날 저문 줄 짐작하고, 혼잣말로 “우리 심청은 무슨 일의 골몰하여 날 저문 줄 모르나고, 풍설의 막혀 그러한가, 강포한 사람을 만나 봉욕을 당하난가?”

- 작자 미상, 「심청전」(경판본) -

(나)

세월이 여유하여 심오 세의 당하더니, 얼굴이 추월하고 효행이 탁월하고 동정이 안온하야 인사가 비범하니 천생여절이라, 가르쳐 행할소냐? 여중의 군자요, 세 중의 봉황이라. 이러한 소문이 원근의 자자하니, 일일은 일평 무릉촌 장승상 님 시비 들어와 ㉠부인 명을 받아 심 소저를 청하거늘, 심청이 부친께 엿자오대, “어른이 부르신즉 시비 함께 가 다녀오겠나이다. 만일 가서 더디어도 잠수시던 남은 진지 반찬 시저 상을 보와 탁자 위의 두었으니, 시정하시거든 접수시오. 부디 나오기를 기다려 조심하십시오.”

하고 시비를 따라갈 제 ... (중략) ... 심 소저 일이 재배하고 엿자오대, “병도 기구하여 낳은 지 초철일 안의 모친이 불행하여 세상 버리시매, 눈 어둔 나의 부친 동냥 짓 얻어 먹어 겨우 살았으니, 모친 얼굴도 모르며 궁천지통 끊길 날이 없삽기로, 나의 부모 생각하여 남의 부모도 공경터니, 오늘 승상부인께옵서 권하신 뜻이 미칠한 줄 헤지 않고 말을 삼으려 하시니, 모친을 다시 뵈은 듯 황송감격하와 마음을 둘 곳이 전혀 없어, 부인의 말씀을 좇아 하면 몸은 영귀하오나, 안흔하신 우리 부친 조석공양과 사철 의복 뒤라시 돌보리까? 구휼하신 은덕은 사람마다 있거니와 나에게 있어서는 남다른지라. 부친 모시옵기를 모친 곁 모시옵고 우리 부친 날 믿기를 아들 곁 믿시오니 내가 부친곳 아니시면 이제까지 자랐으며, 내가 만일 업게 되면 우리 부친 남은 해를 마칠 길이 없사오며, 오조의 사정 서로 의지하여 내 몸이 맞도록 길이 모시려 하옵나이다.”

말을 마치매 눈물이 옥면의 젖는 거동은 춘풍새우가 도화의 맺혔다가 점점이 떨어지는 듯하니, 부인도 또한 긍축하여 등을 어루만지며 가라사대, “효녀로 다 네 말이여, 응당 그러할 듯하다. 노흔한 나의 말이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그렇저런 날이 저물어지니 심청이 엿자오대, “부인의 착하신 덕을 입어 종일토록 모셨으니, 연평이 만하기로 일역이 다하오니 급히 돌아가 부친의 기다리시던 마음을 위로코져 하나이다.” 부인이 말리지 못하여 마음의 연연이 여기서, 체단과 피륙이며 양식을 후이 주어 시비 함께 보낼 적의, “네 부디 나를 잊지 말고 모니간 의를 두면 노인의 다행이라.”

심청이 대답하되, “부인의 착하신 뜻이 이같이 미쳤으니 가르치심을 받자오리다.” 절하여 하직하고 망연히 오더니라. 이때의 심봉사 홀로 앉아 심청을 기다릴 제, 배 고과 등의 불고 방은 추위 턱이 떨어지고, 잘 새는 날아들고 먼 데 절 쇠북 소리 들리니 날 저문 줄 짐작하고, 혼자 하는 말이, “내 딸 심청은 무슨 일의 골몰하여 날 저문 줄 모르나고, 주인에게 잡혀서 못 오난가, 저물게 오는 길의 동무에게 잡착한가?”

- 작자 미상, 「심청전」(완판본) -

<작성 방법>

- (가)와 (나)의 서술 방식상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할 것.
- (나)의 인물 관계를 기능 측면에서 분석할 때 ㉠의 역할을 쓰고, ㉠이 '심청'의 인물형상화에 기여하는 바를 서술할 것.

11. 다음의 작품을 읽고 문제상의 특징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한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간밤에 꿈을 잘못 꾸었던지, 오늘 아침에 마누라하고 다통질을 하고 나왔던지, 아무튼 엔간히 일수 좋지 못한 인력거꾼입니다.

여느 평탄한 길로 끌고 오기도 무던히 힘이 들었는데 골목쟁이로 들어서서는 빗맛이 경사가 진 이십여 칸을 끌어올리기가, 엄살이 아니라 정말 허가 나올 뻔했습니다.

이십팔 관, 하고도 육백 몸매……!

윤직원 영감의 이 체중은, 그저께 춘심이년을 데리고 진고개로 산보를 갔다가 경성우편국 바로 뒷문 맞은편, 아따 무어라더냐 그 양약국 앞에 놓아 둔 얇은뱅이저울에 올라 서본 결과, 춘심이년이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중략…)

초리가 길게 째져 올라간 봉의 눈, 준수하니 복이 들어 보이는 코, 부리가 추옥 처진 귀와 큼직한 입모, 다야 수부귀다남자(壽富貴多男子)의 상입니다. (A)

나이……? 올해 일흔두 살입니다. 그러나 시뻘 여기진 마시오. 심장 비대증으로 천식(喘息)기가 좀 있어 망정이지, 정정한 품이 서른 살 먹은 장정 여대친답디나. 무얼 가지고 겨루든지 말이지요. (…중략…)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올사. 옛날 세상이었다면 일도(一道) 방백(方伯)일시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간혹 입이 비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 착오를 일으키고 동경, 대판의 사탕장수들은 캐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인력거에서 내려 선 윤직원 영감은, 저절로 떠억 벌어지는 두루마기 앞섶을 여미려고 하다가 도로 걸어 젖히고서, 간드러지게 허리띠에 가 매달린 새파란 염낭끈을 풀습니다.

"인력거 썩이(삿이) 몇 푼이당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사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그저 처분해 주십시오!"

인력거꾼은 담요로 팔짱긴 허리를 굽신합니다. 좀 점잖다는 손님한테는 향투로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립니다. 후히 생각해 달란 뜻이지요.

"응! 그리여영? 그럼, 그냥 가소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꾼을 찌웃이 바라다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풀었던 염낭끈을 도로 비끄러웁니다.

인력거꾼은 어떤 영문인지를 몰라 두뻗뻗했다가, 혹시 외상인가 하고 뒤통수를 금적금적하면서,

"그럼, 내일 오랍소니까?"

"내일? 내일 무엇 하러 올랑가?"

윤직원 영감은 지금 심청이 약간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가족이나 긴장이 잔말을 씩힌대서 적이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력거꾼으로 당하고 보면, 무엇 하러 오다니, 외상 준 인력거 샅 받으러 오지요 라는 것이지만,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가 있나요.

그러니 말은 바른 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 자못 난처한 판인데, 남의 그런 속도 몰라주고 윤직원 영감은 인제는 내 할 말 다야 했다는 듯이 천천히 돌아서 버리자고 합니다.

인력거꾼은, 이러다가는 여느 때도 아니요, 허파가 터질 뻔한 오늘 벌이가 눈 멀뚱멀뚱 뜨고 그만 허사가 되지 싶어, 대체 이 어른이 어째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도, 그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좌우간 이렇게 병신스럽게 우물쭈물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크게 과단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어, 샅 말씀이올습니까. 헤……"

크게 과단을 낸다는 게 결국은 크게 조심을 하는 것뿐입니다.

"짜?" / "네에!" / "아-니 여보소, 이 사람……"

윤직원 영감은 더러 역정을 내어 하마 샷대질이라도 할 듯이 한 걸음 나섭니다.

"……자네가 아까 날더러 처분대루 허라구 허잡았는가?" / "네에!"

"그렇지……? 그런데 거, 처분대루 허람 말은 맘대루 허람 말이 아닌가?" / 인력거꾼은 비로소 속을 알았습니다.

채만식, 「태평천하」

(나)

도련님 답답하여 사또의 취침하심을 알려 하고, 신 벗어 양 소매에 넣고, 옷자락을 걷어 안고, 자취없이 가만가만 들어가 상방 영창을 침 발라 구역을 뚫고 가만히 들여다 보니, 사또 눈에도 오수경을 쓰고 안석에 기대어 이만하고 누웠거늘, 영창을 가만히 열고, 사또 옆으로 가만히 들어가 사또를 물끄러미 보더니 속눈을 뺐는지 감았는지 알 수 없어 손가락으로 사또 눈을 요령요령하니, 사또께서, “네 이게 웬 짓이니?”나무래시는 게 아니라, “야가 이러다 내 속눈을 찌르지.”○이랬다 하되 광대 망설이었다.

장자백 창본 <춘향가>

<보 기>



화자가 타인의 말과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칭하여 화법이라 할 때, 이는 일반적으로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타인의 말과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후자는 화자가 타인의 말과 생각을 자기의 말로 전달하는 것이다.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중간적, 혼합적 성격을 띠는 화법이 구사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지칭하는 개념이 대응 서술이라고도 불리는 **자유간접 화법**이다.

<작성 방법>

- ㉠과 같은 서술 방식을 (가)에서 찾아 앞 두 어절과 뒷 두 어절을 쓸 것.
- (A)에서 ㉠의 서술 방식이 잘 드러나는 부분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찾아 쓸 것.
- (가)에서 풍자적 성격이 드러날 수 있는 이유를 인물의 성격과 심리적 거리 조정을 바탕으로 서술할 것.

【 예시 답안 】

㉠과 관련하여 “이 이야기를 ~ 좀 경망스럽습니다.”에서 동일한 진술 방식이 드러나며, ㉡과 관련하여 “그러나~마시오”에서 서술자와 인물이 동화된 진술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움직임 영감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부정적 성격(모습)과 서술자와 독자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인물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서 풍자의 성격이 드러난다.

【 채점 기준 】

1	○ 이 이야기를 ~ 좀 경망스럽습니다. - 1점 ○ 그러나~마시오 - 1점
2	○ 부정적 성격 - 1점 ○ 인물과 독자의 거리감이 멀어짐 /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까워짐 - 1점 (각 0.5점)



적중 사례 8

[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前腔 내 님물 그리수와 우니다니
 中腔 산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
 後腔 아니시며 거츠르신 둘 아오
 附葉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루시리이다
 大葉 너시라도 님은 혼디 녀저라 아오
 附葉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二葉 과(過)도 허물도 천만 업소이다
 三葉 물히마리신더
 四葉 슬웃분더 아오
 附葉 니미 나를 허마 니즈시니잇가
 五葉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 -

(나)

강천(江天)의 혼자 서서 디는 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흔더이고
 모쥬(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하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니니
 저근덧 역진(力盡)하야 꾀음을 잠간 드니
 정성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옥 7툼 열굴이 반이나나 늘거세라
 막음의 머근 말슴 슬꺾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 허며
 정(情)을 못 다하야 목이조차 메어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증은 엇디 시뉘던고
 이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쉰이로다
 출하리 쇠어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서
 님 거신 창 안히 번드시 비췌리라
 각시님 돌이야카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

(다)

님오란 회양(淮陽) 금성(金城) 오리남기 되고 나는 삼사월 늙너출이 되야
 그 남기 그 출이 낙거미 나비 감드 이리로 춘춘 저리로 춘춘 외오 프러 울이 감아 밋
 붓터 쫓 썩지 혼 곳도 빈 름 업시 주야장상(晝夜長常) 뒤트러져 감겨 이서
 동(冬)첫쫓 바람비 눈서리를 아모리 마즈들 풀닐 줄이 이시라

- 이정보 -

3. <보기>는 고전 시가에 나타난 시간 의식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시어나 시구를 찾아 쓰시오. [2점]

<보기>

한국의 시가 문학에서 '과거-공정적, 현재-부정적, 미래-부정적'인 시간 의식의 유형은 매우 보편적이다. 과거는 (가)에서 '님'과 '흔디 녀'던 시간으로, (나)에서 '님'의 (㉠)을/를 가까이서 보았던 시간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현재는, (가)에서는 (㉡)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님'에 의한 망각을 두려워하는 시간으로, (나)에서는 오직 꿈을 통해서만 '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나타난다. 미래에는 '님'과 '나'의 관계가 과거와 같이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불확실하거나 실현되기 어려운 소망이다.

4. 다음은 작품을 읽고 작품과 관련한 다양한 맥락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수업하고자 한다. ㉠과 ㉡에 들어갈 시구를 찾아 쓰시오. [2점]

내 님물 그리수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둘 아오
 殘月曉星(잔월 효성)이 아루시리이다.
 너시라도 님은 혼디 녀저라 아오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過(과)도 허물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물히마리신더
 슬웃분더 아오
 니미 나를 허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정서, 「정과정」

작가 맥락	정서는 고려 인종과 동서 간으로 오랫동안 왕의 총애를 받아 왔다. 그런데 의종이 즉위한 뒤 못 사람이 정서가 역모에 가담했다는 참소를 하여 의종이 정서를 고향인 동래로 유배를 보냈다.
작품 읽기	유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 그리고 슬픔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기 보다는 여성 화자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 생각했다. 특히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대상인 (㉠)은/는 원형적 심상을 통한 公明正大(공명정대)함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었다. 이 작품은 여성 화자가 입을 그리워하는 이별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와/과 같은 시구를 통해 자신을 참소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나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와 같이 화자를 음해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배 가사의 原流(원류)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상호 텍스트 맥락	정철, 「사미인곡」, 「속미인곡」

㉠ 잔월 효성 ㉡ 아니시며 거츠르신 둘

정과정 鄭瓜亭

맥락과 정경: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노래

<정과정>은 고려 의종 때 유배 갔던 정서가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지은 노래이다. 금방 다시 부르겠다는 의종의 약속과 달리, 좀처럼 해배와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처지에서 만든 노래로 알려져 있다. 『악학궤범』에 '삼진작(三眞勺)', 『대악후보(大樂後譜)』에 '진작(眞勺)'이라는 제목으로 노랫말이 수록되어 전한다. 『고려사』악지와 열전에는 창작 배경과 사연이 실려 있다. 이처럼 <정과정>은 고려가요 가운데 작자가 분명하고 창작 배경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전하는 작품이다.

<정과정>은 내시장중 정서가 지은 것이다. 정서는 과정이라 자호했고 외척과 혼인을 맺어 인종의 총애를 받았다. 의종이 즉위하게 되자 그의 고향인 동래로 돌려보내면서 이르기를, '오늘 가게 된 것은 조정의 의문에 물려서이다. 머지않아 소환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정서가 동행 오래 머물러 있었으나 소환 명령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거문고를 잡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가 극히 처비(淒悲)하였다.

정서가 귀양을 떠날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번 일은 조조이 공문에 물려서이니 가 있으면 곧 소환하게 될 것이다'고 위안하였다. 그러나 정서가 귀양 간 후 오랫동안 지났으나 소환 명령이 오지 않자 정서가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가사가 지극히 처량하였다. 정서는 스스로 과정이라 호를 지었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그가 지은 곡조를 <정과정>이라고 불렀다.

고려 후기 이재현(李齊賢)은 『익재난고(益齋亂藁)』에서 <정과정>의 앞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시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憶君無日不霑衣(억군무일부점의) 날마다 임 생각이 울며 옷깃을 적시니
 政似春山蜀子規(정사춘산촉자규) 임 모습은 봄날 동산에서 우는 접동새 같아라
 爲是爲非人莫問(위시위비인막문) 내가 옳은지 그른지 아무도 묻지 마소
 只應殘月曉星知(지응잔월효성지) 새벽달과 별만은 응당 알리이다

이 노래는 궁중에서 널리 불렸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악공을 선발하는 시험의 필수 곡목으로 지정되는 등 많은 인기를 얻었다. 고려속요에 대한 후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충신이 임금을 그리는 가사이므로 사용해도 거리키는 일이 없다'는 『성종실록(成宗實錄)』의 기록(성종 19



년 8월 13일)과 같이 사대부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이다.

꼼꼼히 읽기: 슬픔과 그리움, 억울함과 기막힘의 뒤영김

이 노래는 단도직입적으로 '내 입을 그리워하여 울고 지낸다'는 말로 시작한다. 특별한 문학적 수사나 장치 없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접동사의 이미지를 빌려 와 자신의 처지에 빚대어 표현함으로써 그의 심정이 얼마나 애절하고 절박한지를 토로하고 있다. 촉나라 망제의 혼이 깃든 자규와 그 핏빛 울음은 멀리 유배를 와서 돌아가지 못하는 그의 비극적인 사연을 그려내기에 알맞은 소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꼭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결백함이 아니었을까? 화자는 '참소가 진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 을 잔월효성이 알 것'이라고 자신의 결백을 호소한다.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서 늘만은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것이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처럼 억울한 처지와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을 늘어놓다가도, 입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물밀 듯이 찾아와 '녘이라도 입과 함께 살고 싶구나'를 내뱉게 된다. 억울함과 그리움의 정서가 가라앉아 있기에 지금의 상황이 더욱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평서형 대신 '함께 살고 싶구나'의 감탄형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감정의 변화에서 이해될 수 있다. 평서형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고, 감탄형과 의문형을 통해서는 촉구나 강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이형대, 1999).

곧이어 '허물이 있다고' 우기던 '이가 누구였는지' 억울하고 답답한 처지를 다시 짚어낸다. 그리고 자신에겐 '잘못도 허물도 전형 없음'을 주장한다. 이 모두는 누군가가 험뜯는 바람에 생긴 일이며, 자신의 결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재차 피력하고 있다. 못사람들의 참소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생각에 밀려오는 슬픔과 억울함을 거침없이 내뱉는다. 금기가 '임께서 나를 벌여 잊으셨습니까?'라며 자신을 잊어버린 입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기에 이른다.

그러나 결코 입을 버릴 수 없기에 또한 임만이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자기를 저버리지 말라는 간절한 호소 되돌아가는 것은 예정된 결론일 수 있다. 입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접어두고 다시 자신을 사랑해달라는 간절한 애원투의 목소리로 노래를 마무리 짓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 특히 유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신하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었을까?

이처럼 작품 전체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분추하면서 자신의 뒤틀림을 드러내는 데 치중한 탓에, 때때로 직설적인 표현과 따지는 듯한 말투마저 보인다. 거친 표현 속에서 처절한 호소와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왕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일인 만큼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았을 것이기에 정연한 노랫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특히 상소문이 아닌 노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마음껏 표출함으로써 심리적 으로나마 위안을 얻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을 거라 짐작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개선될 여지를 찾지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로나마 마음 속 감정을 실컷 토로하는 것이다.

실제로 노래에 담긴 그의 애절한 바람은 현실에서 곧바로 실현되지 못한다. 정서는 동래에서 거제도로 유배지를 옮겨가며 20년 걸친 유배 생활을 한 끝에, 의종 이후에 즉위한 명종 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풀려난다. 통일신라 시대에 신충(信忠)이 <원가(怨歌)>를 부름으로서 다시 등용될 수 있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비록(정과정)은 해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지극히 쓸쓸하고 구슬프다'고 평한 『고려사』의 기로고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호소력으로 인해 조선시대까지도 널리 향유되면서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다. 웅어리진 한과 하소연이 노래에 생생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읽어 읽기: 충신연주지사의 표현 관습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는 글자 그대로 충성스런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를 일컫는다. 충신연주지사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성종 때 당시의 궁중음악을 비판하는 가운데 '진작(眞作, <정과정>)은 비록 속된 말이나 충신이 임금을 그리는 가사이므로[忠臣戀主之詞] 사용해도 거리끼는 일이 없다'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사에 처음 등장한다. 이는 <정과정>을 충신연주지사의 첫 작품으로 손꼽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정과정>은 충신연주지사가 환기하는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작자 정서의 '성격이 경박(性輕薄)'하다는 『고려사』 〇르저노이 기록도 볼 수 있거니와, 유배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노래를 지었던 정도 순수한 충신의 노래로 보기 어렵게 한다. "입의 무심함에 대한 원망"(이형대, 1999)이 열거되고 반복되는 노랫말도 그러하다. 이러한 점은 충신연주지사가 단순히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정도로 쉽게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잘 알려진 것처럼 충신연주지사의 관습은 전국시대 말기 초나라의 충신 굴원(屈原)과 그의 자전적인 장형시가인 <이소(離騷)>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굴원은 초왕을 섬겨 충성을 다했으나 간신의 참소로 추방된 9년 동안 상강(湘江) 일대를 떠돌게 되고, 마침내 먹라강에 투신함으로써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자신의 간언을 들어주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을 추방까지 했건만, 신하로서 임금과 임금의 나라를 버릴 수 없었던 우국지정을 노래한 작품이 바로 <이소>인 것이다. 이처럼 바른 정치를 펼 미인(美人)을 갈구한 신하로서의 자세, 다른 임금을 섬길 수 없어 투신한 결기 있는 행동은 군신 관계에서 신하의 충정에 대해 성찰하게 했고, 이후 중국과 조선 문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굴원은 분발을 만한 인물이고, <이소>는 거듭 용사(用事)의 대상이 되어 여러 작품의 모티프나 내용으로 활용되었다.

그렇다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 대개의 충신연주지사에서 왕은 남성으로, 신하는 여성으로 설정된다. 남성 작자는 작품 속에서 여성 화자로 관계가 치환되면서, 자신이 처한 처지와 간절한 마음을 이별한 여성의 목소리로 절절하게 그려낸다(최홍원, 2009). 아래 정철이 지은 <사미인곡(思美人曲)>을 살펴보자.



나 하나 점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무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여 업다.
 평생(平生)에 원(願)하오디 한디 네자 하얏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전(廣寒殿)의 올랐더니
 그 더디 엇디하야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올 적의 비슨 머리 열리면 디 삼년(三年)이라.
 연지방(胭脂粉) 잇니마는 놀 위하야 고이 홀고.

젊어서 임의 사랑을 받던 화자가 이모가 이별하게 된 사정을 얘기하고 있다. 광한전에서 임을 보셨던 화자가 하계(下界)에 내려온 지 삼 년이 되었다고 한다. 임과 떨어져 있으니 누구를 위하여 연지방(胭脂粉)으로 곱게 단장하겠느냐며 이별의 고통을 내뿜고 있다. 이별한 여성이 임을 향한 그리움의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만, 광한전, 하계, 연지방 등은 사실 임금을 향한 충군지정을 표현하기 위한 관습적인 설정이자 소재이다.

이처럼 충신연주지사의 대표적 노래인 <사미인곡>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 일찍이 조선 후기 문신 김상숙(金相肅)은 "한결같은 마음"을 고리로 군신의 충이 남녀의 연정으로 표현된다고 평가기도 했다.

고신(孤臣)과 원녀(怨女)는 의중이 똑같다. 여자는 지아비에게 버림을 받더라도 자신이 지아비를 버리지는 않으며, 신하는 임금에게 배척을 당하더라도 자신이 임금을 배척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의리가 중요함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한결같은 마음이 끈고 굳기 때문이다.

임을 상계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로 그리고 임에 대한 절대적인 연정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노래들이 다수 창작되면서, 충신연주지사의 창작과 향유는 하나의 문화적 전통을 이루게 된다.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 양이나 권력 집단의 견제로 정치적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결백과 왕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하나의 표현 관습으로 자리 잡는다. 충신연주지사라는 양식 자체가 버림받은 상황에서도 왕과 국가에 대한 충성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굴원 아래의 전통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충신연주지사의 차용은 유배와 같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심정을 안전하게 드러내는 장치가 되었던 것이다.

사실 임금을 미인에 빗대고 이별한 여성의 목소리로 무조건적인 충정을 토로하는 것은 미인에 빗대어 이별한 여성의 목소리로 무조건적인 충정을 토로하는 것은 유교적 군신 관계에서 가능한 발상이다. 그리고 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정을 토로하는 문학은 통치의 중심에 왕이 있었기에 지속될 수 있었던 문학양식이다. 정치적 수사일망정 왕의 입장에서 굳이 충신연주지사의 노래를 싫어할 까닭이 없었다. 유배자의 입장에서 해배의 결정권자인 왕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의 감회와 생각을 은근히 전달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독특한 표현 관습을 지닌 문학적 소통 방식의 하나로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이 생겨났고, 이후에도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출처,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시가작품론」



적중 사례 9

7. <자료>를 탐구하여, 중세 국어 의문문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자료>

(1) ㄱ. 네 옛데 안다 <월인석보 23:74a>
 ㄴ. 네 겨집 그려 가던다 <월인석보 7:10a>

(2) ㄱ. 이는 옛던 사람고 <월인석보 22:26b>
 ㄴ. 이 두 사르미 眞實(진실)로 네 향 짓가
 <월인석보 8:94b>

(3)
 ㄱ. 羅曇(구담)이는 어딘 사르미라 <월인석보 4:9b>
 ㄴ. 吏(리)는 다스리논 거시오 <월인석보 13:13b>

<작성 방법>

- 의문문 (1)과 (2)의 통사적 차이점 2가지를 설명할 것.
- (2ㄱ)의 '고', (2ㄴ)의 '가'를 어미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3)을 활용하여 설명할 것.

4. 다음은 15세기 국어의 문장의 종결 표현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아래의 ㉠과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중세 국어 : 15세기 국어

(가) 탐구 자료

· 누를 니르더뇨 · 네 스승이 누고 · 논문 누구	· 이 썩리 너희 종가 · 얻는 藥이 므스것고
------------------------------------	------------------------------

(나)
 · 아바낫 病이 기프시니 옛데 향료 <석 11:18>
 · 네 옛던 헤머로 나를免케 훗다 <월석 21:56>

(다) 수업 대화

교 사 : (가)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현대 국어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이한 의문문 형태가 보여요. 특히 문장의 종결에서 체언이 오고 그 뒤에 (㉠)이/가 나타나는 것은 의문 종결어미 '-까'로 실현되는 현대 국어와는 차이가 보여요.

학 생 : 선생님 그럼 (가)에서는 15세기에만 존재했던 특이한 조사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나)에서도 똑같은 사례인가요?

교 사 : 아니에요. (나)에서는 모두 의문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된 의문문이에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인칭에 따른 구분이 있었어요. 다만 (가)와 (나)의 사례들 중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의 유무에 따라 그 형태 교체도 있었던 점이 특이합니다.

㉠ 의문 보조사 ㉡ 의문사

6. 다음은 문장종결어미의 변천과 관련하여 수업하고자 한다. <보기>를 고려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4점]

(가)

- a. 네 언제 王京의셔 떠난다 (번역노걸대 상 1)
- b. 네 삭슬 언메나 줄다 (번역박통사 상 11)
- c. 可히 비호기를 즐긴다 날을디나라 (번역소학 3:7)
- d. 君子는 薰디 아니훈다 호니 (논어언해 2:24)

(나)

- a. 네 이제 또 묻는다
- b. 金輪王(금륜왕) 아드리 出家하라 가느니

(다)

- a. 君을 섬고매 禮를 다함을 사름이 卑 諷훈다 흥는다 (논어언해 1:25)
- b. 常言에 닐오디...물을 古음알면 물엿겨슬 먹는다 흥니라 (박통사언해 하 37)

<보 기>

문장종결법은 언어내용을 전달하면서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가지는 의향을 실현하는 문법범주로서,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등의 하위범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의 문법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거쳤다.

15세기 국어의 문장종결어미는 ㉠현대 국어에 이르는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소멸되거나,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였다.

<작성 방법>

- (가)의 사례들의 밑줄 친 문장종결(문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쓰고, <보기>의 ㉠의 변화 과정을 서술할 것.
- <보기>의 ㉡을 고려할 때 (나)와 (다)를 비교하여 시제 표현의 특징을 설명할 것.

[예시 답안]

(가)의 a와 b는 의문문이며 c와 d는 평서문이다. 2인칭의 주어에서 쓰이던 '-나'나 '-는다'의 경우 현대 국어에 오면서 인칭과 의문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가)로 통일되어 쓰이고 있다. (나)에서 15세기 한국어에서는 '-느-'가 동사에 붙어서 현재형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때 앞으로 오는 어간 말음이 자.모음과 상관없이 통일되게 쓰이다가 (다)처럼 17세기에 이르러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말음 뒤에서는 '-나'로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말음 뒤에서는 '-는다'로 구분되어 새롭게 생성되어 쓰였다.



【 개념 기준 】

1	○ a와 b는 의문문 / c와 d는 평서문 - 1점 ○ 인칭(의문사)구분 없이 '-나(-가)'로 통일 - 1점
2	○ 자/모음 구분 없이 '-느-'로 통일 - 1점 ○ 어간 말음이 자음-'-나다' / 모음-'-는다' - 1점

【 참고 내용 】

의문법의 변화

앞서 문장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문어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고, -고'와 같은 '고'형 어미와 '-나-가, -가'와 같은 '가'형 어미로, 또 주어가 2인칭인 경우는 '-나-다, -다'와 같은 어미로 의문법이 달리 표현되었음은 15세기 국어의 큰 특징이다. 즉 [의문어 여부] 및 [인칭]이라는 조건에 따라 의문법이 분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는 의문문에 의문어가 있든 없든, 주어의 인칭이 어떠한 의문어미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의문법이 역사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 준다.

인칭에 따른 의문어미의 구분은 근대 국어에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지만 점차 '-은/을-다' 형태의 세력은 축소된다. 문장 (4)와 같이 16세기 국어에서 주어가 청자(2인칭)인 경우 '-은/을-다' 형태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5)와 같이 주어가 청자임에도 '-은/을-가, -은/을-고' 형태로 바뀌어 쓰이기도 한다.

- (4) a. 네 언제 王京의셔 떠난다[떠나-나-다] (번역노걸대 상 1)
b. 네 삭슬 언제나 줄다[주-다] (번역박통사 상 11)
- (5) a. 상공하 이제 다 도호야 겨신가[겨시-나-가] 묻호야 겨신가[겨시-나-가] (번역박통사 상 38)
b. 형님네 언제 길 나실고[나시-고] (번역박통사 상 8)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18세기 국어로 이어지는데, 의문어미 '-은/을-다'의 소멸은 결과적으로 [인칭]이 관여하여 분화되었던 의문법 체계를 단순화시켰다. 그러면 '-다' 형태 의문어미의 소멸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일까? 그것은 문법 내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결정적인 원인은, 다음에 살펴계 될, 서술어미 '-나-다'의 발달에 있다. 16세기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서술어미 '-나-다' 형태가 확대된다.

- (6) a. 미히 비호기를 즐긴다[즐기-나-다] 날을디나라 (번역소학 3:7)
b. 君子는 讒티 아니 혼다[아니 혼-나-다] 호니 (논어연해 2:24)
c. 義를 아디 묻 혼다[묻-나-다] 호노니 (맹자연해 3:15)

결국 서술어미와 의문어미의 형태가 같아지면서, 동음충돌을 피하려는 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그 결과 '-다' 형태 의문어미가 다른 형태의 의문어미로 흡수되어, 그 결과 [인칭]에 의한 의문법 체계가 근대 국어 시기에 소멸된다.

그리고 의문어가 있고 없음에 의한 '-고, -가'의 대립도 근대 국어 시기에 동요된다. 17세기 국어 (7)에는 '엇디, 언마'라는 의문어가 있음에도 '가' 형태인 '-가, -나'가 나타나 있다. 비록 (8a)처럼 17세기에 유지되어 있었더라도, 18세기 자료에서는 (8b)처럼 변화하였다. 이러한 동요는 더욱 확산되어 19세기에 이르러 [의문어 여부]에 의한 의문법 체계도 소멸하였다.

- (7) a. 이 나라 匪下 | 되었스오니 므릇 일을 엇디 열현이 흐리잇-가 (첩해신어 13:5)
b. 언마 모다 우은 거시라 녀기셔-나 (첩해신어 9:4)
- (8) a. 振舞를 호고져 호오니 엇디호을-고 (첩해신어 9:1)
b. 振舞하여 놀고자 호오니 엇디호리잇-가 (개수첩해신어 9:1)



적중 사례 10

6. 다음을 읽고, <자료>에서 연결 어미의 제약을 탐구한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4점]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은 각각의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선행절과 후행절이 이어진 것이므로 선행절의 주어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 (1) 영화가 밥을 먹고 {민수가/∅} 커피를 마셨다.
- (2) 영화가 밥을 먹다가 {*민수가/∅} 커피를 마셨다.

(1)에서 보듯이 후행절의 주어는 선행절의 주어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으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략된다(생략된 주어는 ∅로 표시). 그런데 (2)에서 보듯이 일부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선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같아야만 하는 제약이 있다.

연결 어미와 관련된 또 다른 제약은, 일부 연결 어미의 경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의 결합이 안 된다는 것이다.

- (3) 영화가 밥을 {먹고/먹었고} 민수가 커피를 마셨다.
- (4) 영화가 밥을 {먹자마자/*먹었자마자} 커피를 마셨다.

(3), (4)에서 보듯이, 선행절의 사건과 후행절의 사건이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도 '-고'와는 달리 '-자마자'는 '-었-'과 결합하지 못한다.

<자료>

- A. 영화가 전화를 받으려고 {㉠민수가 / ㉡∅} 밖으로 나갔다.
- B. 그날은 내가 일이 {㉢생겨서 / ㉣생겼어서} 참석을 못 했다.

<작성 방법>

- A에서 ㉠과 ㉡에 의해 만들어진 각 문장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쓰고, 적격성 판단에 적용한 연결 어미의 제약을 서술할 것.
- B에서 ㉢과 ㉣에 의해 만들어진 각 문장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쓰고, 적격성 판단에 적용한 연결 어미의 제약을 서술할 것.

10. 다음은 우리말의 어미 결합의 제약과 관련하여 탐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가)의 설명을 참고하여 (나)와 (다)의 제약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4점]

(가)

우리말에는 다양한 어미가 존재한다. 크게는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로 나누어지며, 비종결 어미는 다시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로 나누어진다. 이런 어미가 결합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시제 표시의 제약이 그 예이다.

- a. 비가 와서 길이 질다.
- b. *길이 질어서 비가 왔다.

이 사례에서 보면 연결어미 '-아서/어서'는 앞절의 일이 뒷절 사건의 원인임을 밝히는 뜻을 지니는데, 이럴 경우 b와 같이 뒷절의 시제가 과거일 수가 없다. 또한 관형사형 어미의 경우는 결합 제약에 따라 그 형태만으로도 결합할 수 있는 단어의 품사의 성격을 구별할 수도 있다.

(나)

- ㄱ. 빨리 가거라. cf. *...회여라, 책이여라
- ㄴ. 빨리 가자. cf. *...회자, 책이자
- ㄷ. 노래를 부르면서 걷자. cf. *...회면서, 책이면서

(다)

- ㄱ. 비가 그치거든 가라.
- ㄴ. *비가 그치거든 가다.
- ㄷ. *비가 그치거든 가니?
- ㄴ. 나는 어제 그 소식을 듣고서 곧 떠날 준비를 하였다.
- ㄴ. *나는 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영화가 곧 떠날 준비를 하였다.

<작성 방법>

- (나)의 사례에서 어미를 모두 찾아 쓰고, 그 제약에 대해 설명할 것.
- (다)의 ㄱ과 ㄴ의 사례에서 연결 어미를 찾아 그 제약에 대해 각각 설명할 것.

【 예시 답안 】

(나)의 ㄱ은 명령형 어미 '-어라'가 ㄴ은 청유형 어미 '-자'가 ㄷ은 연결어미 '-(으)면서'와 청유형 어미 '-자'가 쓰였다.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 그리고 연결어미 '-(으)면서'는 모두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고,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

(다)의 ㄱ에서 '-거든'이 ㄴ에서는 '-고서'가 쓰였으며, ㄱ의 '-거든'의 경우는 평서형이나 의문형과 함께 쓰이지 못하며, ㄴ의 '-고서'의 경우는 반드시 앞절과 뒷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 해설 기준 】

1	○ ㄱ, ㄴ 명령형, 청유형 어미 / ㄷ 연결어미, 청유형 어미 - 1점 (하나라도 놓친 경우는 0점 처리) ○ 동사와 결합 가능 / 형용사, 서술격 조사와 결합 불가능 - 1점 (각 0.5점)
2	○ ㄱ 평서형이나 의문형이 불가능 - 1점 ○ ㄴ 주어 일치 제약 - 1점

점문장의 문법적 특성

이동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은문장: 이동 제약 없거나 적음 예) ㄱ. 내일 날씨가 맑으면 우리는 소풍을 갈 것이다. ㄴ. 우리는 내일 날씨가 맑으면 소풍을 갈 것이다. • 이어진문장: 이동 제약 매우 강함 예) ㄱ. 산은 높고 물은 깊다. ㄴ. *물은 산은 높고 깊다.
시제, 상, 양태 선어말 어미의 결합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어서' 앞에는 '-았/었-' 쓸 수× 예) ㄱ. 지난 주말에는 독감에 {결려서, *결렸어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 '-(으)려고' 앞에는 '-겠-' 쓸 수× 예) ㄱ. 시험에 {합격하려고, *합격하겠으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 '-(으)면서' 앞에는 '-더-' 쓸 수× 예) ㄱ. 집에 {가면서, *가더면서} 그 가게에 들러 음반을 사곤 했습니다.
주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진 문장: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



	<p>• 안은문장</p> <p>-내포절과 모절의 주어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어미</p> <p>예) 가. *철수는 시험에 합격하고자 영희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기. 철수는 시험에 합격하고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나. *철수는 문구점에 가서 영희는 공책을 샀습니다. 니. 철수는 문구점에 가서 공책을 샀습니다. 다. *아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 아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p> <p>-내포절과 모절의 주어가 반드시 달라야 하는 어미</p> <p>예) 가. 철수가 늦게 들어가자 선생님은 화를 내셨다. 나. *철수가 늦게 들어가자 철수는 피곤했다.</p>
<p>어미와 결합하는 서술어 종류의 제약</p>	<p>• 서술어가 동사여야만 하는 내포 어미: -(으)려고, -고자, -러</p> <p>예) 가. 첨단 과학을 연구하려고 그 나라에 갔다. 나. *기분이 좋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다. *민수는 훌륭한 학생이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p>
<p>안은문장의 모절의 문장 유형 제약</p>	<p>• -거니와: 모절이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될 수×</p> <p>예) 가. *수미 씨는 공부도 잘하거니와 운동도 잘합니까? • -아/어서: 모절이 명령문 될 수×</p> <p>예) 가.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꼭 가져가십시오. • -거든: 모절이 평서문, 의문문 될 수×1)</p> <p>예) 가. *피터 씨는 한국에 오거든 수미 씨에게 꼭 전화합니다.</p>
<p>내포절의 부정 표현 관련 제약</p>	<p>• 부정 표현과 결합하지 못하는 내포 어미: -느라, -러</p> <p>예) 가. 그는 TV를 보느라 내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다. 기. *그는 TV를 안 보느라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나. 그는 나를 만나러 서울에 왔다. 니. 그는 나를 안 [*만나러, 만나려고] 서울로 갔다.</p>
<p>어미의 보조사 결합 제약</p>	<p>• 보조사와의 결합 제약이 없는 어미</p> <p>예) -(으)면서, -고사, -아/어서, -(으)러, -(으)려고, -게, -도록, -다가, -고자</p> <p>• 보조사와 결합하지 못하거나 결합에 심한 제약이 있는 어미</p> <p>예) -거니와, -아/어도, -(으)되, -건만, -(으)니, -느라고, -거든, -(으)니 들, -다시피, -자, -(으)르수록</p>

1) “그분이 오시거든 먹겠니?”에서처럼 후행절이 의지·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거든’이 평서문이나 의문문에서도 쓰일 수 있다.



적중 사례 11

2.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2점]

음운 현상 중에서 첨가, 탈락, 축약은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있는 현상이다. 첨가는 '랜입 → [랜닙]'처럼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는 현상이고, 탈락과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탈락 중에서 활용에서의 /ㄹ/ 탈락은 (1)에서 보듯이 'ㄴ, ㄱ/앞'에서 일어난다.

(1) 만드니, 만드스니

그런데 (2)에서 보듯이 /ㄹ/ 발음 어간이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할 때도 /ㄹ/ 탈락이 일어난다.

(2) 만들 (수 있다)

(2)에서 /ㄹ/이 탈락한 이유는 (1)과는 다르다. (2)에서 /ㄹ/이 탈락한 이유는 (㉠) 때문이다.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탈락과 같다. 그러나 축약은 '종다 → [조타]'에서 보듯이 두 음운 중 하나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음운이 한 음운으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탈락과 차이가 있다.

탈락과 축약의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3)은 탈락도 아니고, 축약도 아니다.

(3) 일구+어 → [일귀], 거두+어 → [거뒤]

왜냐하면 (㉡) 때문이다.

9. 다음은 우리말의 축약 현상과 관련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아래의 설명을 바탕으로 <보기>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설명하시오.[4점]

학교 문법에서는 두 개의 모음이 두 음절에서 한 음절로 줄어드는 축약이라고 보아 왔다. 그러나 이 현상은 ㉠모음이 반모음으로 변한 대치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음절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축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음절'의 축약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날+고-ㄴ나:코'에서 'ㅎ'과 'ㄱ'이 축약을 통해 [=]으로 실현되는 음운의 축약과는 다른 차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간의 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어 두 개의 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줄어들면서 두 음절이 가지고 있던 길이를 보상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여 ㉡보상적 장음화라고 한다.

<보 기>

(가)

- ㄱ. 기+어→기어→[겨:]
- ㄴ. 쑤+어→쑤어→[쑤:]
- ㄷ. 꼬+어→꼬어→[꽂:]

(나)

- ㄱ. 이기+어→[이겨], 비비+어→[비벼]
- ㄴ. 오+어→[와]
- ㄷ. 지+어→[저]

<작성 방법>

- <보기>의 (가)의 사례가 ㉠처럼 설명될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할 것.
- (가)에 비해 (나)의 사례들에서 ㉡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모두 서술할 것.

【 예시 답안 】

(가)에서 음절의 수는 줄었지만 음소의 수는 그대로로 기존의 어간의 단모음 'ㅣ, ㅏ, ㅑ'가 반모음으로 교체되어 발음되기 때문이다.
(나)의 ㄱ은 반모음화가 일어난 자리가 발화의 첫 번째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적 장음화는 실현될 수 없다. 현대 국어에서 장음은 발화의 첫 번째 음절에서만 실현되기 때문이다. ㄴ은 반모음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ㄷ은 'ㅣ'의 반모음화가 일어날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 국어에서 반모음 'ㅣ'가 다시 탈락을 하였다.

【 해명 기준 】

1	<input type="checkbox"/> 음소의 수가 그대로임 - 1점
	<input type="checkbox"/> 우리말의 장음은 첫 번째 음절에서만 실현 - 1점
2	'첫 번째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input type="checkbox"/> 반모음화가 필수적 - 1점
	<input type="checkbox"/> 반모음 탈락 - 1점

11. 다음은 우리말의 음운 현상에서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에 대한 교육적 의의를 <보기>와 같이 제시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아래의 사례를 <작성 방법>에 따라 바르게 설명하시오.[4점]

(가)

- ㄱ. 잎[입], 벳[벌], 밖[박]
- ㄴ. 국민[궁민], 입말[임말]
- ㄷ. 벌님[벌림], 달나라[달라라]

(나)

- ㄱ. 읍고[읍꼬 ~ 읍꼬], 밭고[밭꼬 ~ 밭꼬]
- ㄴ. 음운론[음운논 ~ 음울론], 신라면[신나면 ~ 신라면], 온라인[온나인 ~ 올라인]

(다)

- ㄱ. 날개[날개 → 낙개], 꽃밭[꽃밭 → 곱밭], 입김[입김 → 익김]
- ㄴ. 안개[안개 → 양개], 신발[신발 → 심발], 감기[감기 → 강기]
- ㄷ. 기어서[기어서 ~ 기여서 ~ 겨:서]
- ㄹ. 보아라[보아라 ~ 보와라 ~ 봐:라]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생성음운론에서는 규칙이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규칙적이지 않은 규칙들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규칙적이지 않은 규칙들 중에도 ㉠언어적 사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규칙이 있고, ㉡규칙적이지 않은 규칙들의 집합 안에서도 음운론적인 의의가 각기 다를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p>○ (가)에서 예측되는 필수적인 음운 현상을 모두 쓸 것. ○ (나)의 사례가 규칙적이지 않은 이유와 함께 <보기>에서 ㉠을 고려할 때 지니는 의미를 각각 서술할 것. ○ (다)에서 수의적으로 불규칙적이지만 <보기>의 ㉡과 관련하여 각각 서술할 것.</p> <p>【 예시 답안 】</p> <p>(가)의 ㄱ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은 비음동화 ㄷ은 유음화 환경으로 예측된다. (나)에서 ㄱ은 음절말의 구조 제약에 따라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일어나지만 탈락하는 자음에서 규칙적이지 않다. ㄴ은 순행적 비음화와 역행적 유음화가 고정되지 않고 서로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 (다)의 ㄱ과 ㄴ은 불규칙적이지만 양순음화와 연구개음화라는 조음 위치 동화 현상이 드러나며, ㄷ과 ㄹ 역시 불규칙적이지만 활음화(반모음화)와 활음첨가(반모음 첨가)가 나타난다.</p> <p>【 채점 기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px; text-align: center;">1</td> <td>○ ㄱ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은 비음동화 ㄷ은 유음화 - 1점 ○ 자음군 단순화 / 순행적 비음화와 역행적 유음화 - 1점 ○ 탈락 자음의 불규칙 / 비음화와 유음화 환경의 불규칙(ㄴㄴ~ㄹㄹ교체) - 1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양순음화, 연구개음화(조음위치동화) - 0.5점 ○ 반모음화, 반모음 첨가 - 1점</td> </tr> </table>	1	○ ㄱ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은 비음동화 ㄷ은 유음화 - 1점 ○ 자음군 단순화 / 순행적 비음화와 역행적 유음화 - 1점 ○ 탈락 자음의 불규칙 / 비음화와 유음화 환경의 불규칙(ㄴㄴ~ㄹㄹ교체) - 1점	2	○ 양순음화, 연구개음화(조음위치동화) - 0.5점 ○ 반모음화, 반모음 첨가 - 1점
1	○ ㄱ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은 비음동화 ㄷ은 유음화 - 1점 ○ 자음군 단순화 / 순행적 비음화와 역행적 유음화 - 1점 ○ 탈락 자음의 불규칙 / 비음화와 유음화 환경의 불규칙(ㄴㄴ~ㄹㄹ교체) - 1점				
2	○ 양순음화, 연구개음화(조음위치동화) - 0.5점 ○ 반모음화, 반모음 첨가 - 1점				



적중 사례 2

5. 다음은 교과서 활동과 학생의 초고(草稿)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보기>와 같이 활동을 수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 최근 들어 젊은이들을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 잘 차려진 음식을 휴대전화로 찍은후에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사진을 찍는 개념도 문화로 자리매김 하였고, 새로운 문화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음식이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음식은 생활의 문제이다. 음식이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시대나 세대가 있었다. 농촌에서 이웃집 사람들이 농사일을 도와주면 그 댓가로 음식을 싸주면서 "가지고 가서 식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주는 것이 좋은 인사치레였고 좋은 선물이던 시대가 있었다. 밥상을 앞에 두고 음식을 너무 탐하면 안 된다고 가르 치는 '음식 절제 예절'을 가정교육의 중요 덕목으로 삼았던 시대가 있었다.

(나)

활동 4 자신이 쓴 글을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 써 보자.

점검 항목	별점
글의 목적에 맞게 썼는가?	★★★★☆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
어법에 어긋난 표현은 없는가?	☆☆☆☆☆

활동 5 앞에서 생성하고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맥락을 고려하여 초고를 써 보자. 그런 다음 다시 읽고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고쳐 써 보자.

제목 _____ _____ _____ _____	고쳐쓰기 방안
-------------------------------------	---------

< 보 기 >

활동 4. 점검표에 따라 자신이 쓴 글을 평가한 후 고쳐 써 보자.

평가 기준	예	아니오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로 각 문단을 통일성 있게 구성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절하지 않거나 잘못된 표현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활동 5. 자신과 친구들이 쓴 글을 읽고,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자.

평가 기준	별점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
근거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
표현이 간결하고 명료한가?	☆☆☆☆☆

활동 6. 앞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글을 고쳐 써 보자.

제목 _____ _____ _____ _____	고쳐쓰기 방안
-------------------------------------	---------

<작성 방법>

2. (가), (나)를 읽고,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쓰시오. [2점]

(가) 학생들의 고쳐쓰기 활동 분석 결과

학습 활동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 후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써 보자.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진단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인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고쳐쓰기 학습 활동의 결과, 단어나 문장 수준에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오류에 대한 고쳐쓰기 빈도가 가장 높았음.

(나) 교사 간 대화

교사 A : 얼마 전에 고쳐쓰기와 관련한 글쓰기 수업을 했습니다. 학습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고쳐쓰기 일반 원리에 대한 지식은 충분했지만 실제 적용하는 데에서는 부족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고쳐쓰기 수업을 다시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사 B : 그렇군요. 우선 학생들에게 고쳐쓰기의 목적이 단순히 글의 잘못된 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정보 전달의 글을 쓸 때는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기억이 용이하도록 글이 구성되었는지를 고려하여 고쳐 쓰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사 A : 맞습니다. (㉠)을/를 고려하여 고쳐쓰기를 지도한 다는 것은 쓰기 맥락 혹은 수사적 맥락을 고려하며 고쳐쓰기를 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것은 고쳐쓰기 과정뿐 아니라 글 쓰기의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교사 B : 아시겠지만 그것은 인지주의 작문 이론에서 강조하는 (㉡)와/과 관련이 있습니다. 쓰기에 대한 (㉡) 수준이 높은 필자일수록 자신의 쓰기 과정에 대한 점검과 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러한 필자는 능숙한 필자입니다. 능숙한 필자는 수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고 그 결과로 쓰기 수행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것이지요.



- (가)를 고려할 때 (나)의 활동 4에서 학생의 자기 점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서술하고, 평가 기준의 보완점을 제시할 것.
- (나)에서 <보기>로 수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활동별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할 것.

【 예시 답안 】

(나)의 활동 4에서는 ㉠문단의 첫 문장이 주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또한 맥락의 구성 요인 중 독자에 대한 점검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나)의 활동 4에서 <보기>의 활동 4는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 항목을 수정하였다. 또한 고쳐쓰기 활동 이전에 학습자 간의 상호 평가 활동을 추가하여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 채점 기준 】

1	○ 구체적 근거를 들어 점검 항목 평가 결과의 오류 지적 - 1점 ○ 독자에 관한 점검항목 추가 - 1점
2	○ 장르 항목으로 수정 - 1점 ○ 상호평가 추가(독자와의 상호작용) - 1점